

WORLDVIEW 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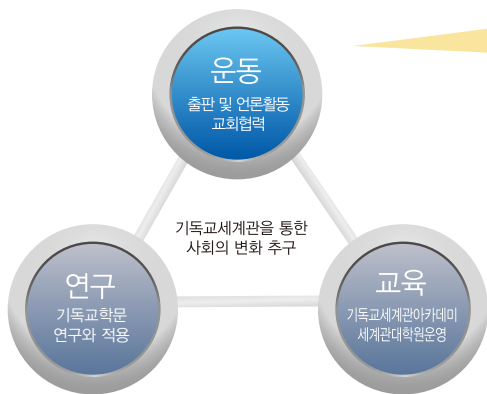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이하 세계관동역회)는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기독교 학문의 토대를 마련하여, 이 땅의 학문과 현실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실천적 지식과 정보를 교회에 제공하며, 교육, 언론, 출판 등의 활동을 통해 이를 더욱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시대적 정신에 스며들어 있는 반기독교적인 요소를 비판하고 기독교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미래 한국 기독교 지성인을 양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성의 제자도는 “머리와 가슴, 그리고 영혼”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복종되어야 이를 수 있습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연구하며 전파하기를 소망합니다.



세계관 운동(DEW_Disciples with Evangelical Worldview)

성경적 삶의 적용을 위한 활동으로 교회를 섬기며 기독교적 대안이 사회에 실천되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 신문, 방송, TV, 인터넷, SNS 등 미디어 매체를 통한 영향력 확산
- 각 지역의 교회, 대학들과 연계하여 세계관 교육
- 지역별 지부를 통해 기독교세계관 교육



월간 월드뷰 발행(WORLDVIEW)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제반 영역에서 성경적 관점으로 세상보기
-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 신간 서평 안내



출판사(CUP_Christian University Press) 운영

바른 성경적 가치관 위에 실천적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이 전인적으로 조화된 균형 잡힌 도서를 출판하여 그리스도인다운 삶과 생각과 학문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문화를 재창조하고 있습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중기과정 7기 및 심화과정 모집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는 1인 미디어시대에 필요한 미디어 실무능력을 길러주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가 기획, 운영하며 국민일보, CTS, CGN-TV 등 주요 기독교 언론단체가 후원합니다.

중기과정 커리큘럼

기독교세계관 기초
사진으로 스토리텔링 하기
창조적 글쓰기
영상연출, 편집이론
기독교세계관과 커뮤니케이션
실용커뮤니케이션
개인UCC제작
기독교세계관과 문화
기독교세계관과 교육
기독교세계관과 역사
기독교세계관과 법
기독교세계관과 과학
기독교세계관과 미술
스토리텔링
졸업작품 기획 및 제작, 발표

심화과정 커리큘럼

기독교세계관 심화
기독교세계관과 문화(심화)
기독교세계관과 교육(심화)
기독교세계관과 역사(심화)
기독교세계관과 법(심화)
기독교세계관과 과학(심화)
기독교세계관과 미술(심화)
모션그래픽을 활용한 개인 영상연출
조명의 이해
디지털 사운드의 이해
다큐멘터리 제작의 이해
소셜미디어의 이해
교회영상 제작
영상캠프
영상포트폴리오 제작 등

최고의 강사진

손봉호(고신대 석좌교수), 이인웅(삼성전자), 조영길(변호사), 신국원(총신대), 성인경(라브리), 박상은(안양샘병원), 한정화(한양대), 김승욱(중앙대), 강진구(고신대), 노영성(장신대), 임춘택(경남대), 박희주(명지대), 이승엽(서강대), 이경원(서울국제제트스쿨아카데미), 장유진(전 MBC W제작PD), 박정현(한예중), 정달권(사진작가), 김도태(스튜디오408), 이정아(CGN-TV), 이철원(CGN-TV), 김정원(MEN) 등

중기과정 지원자격 : 대학 재학 또는 졸업자 (세례교인, 74년 이후 출생자)
심화과정 지원자격 : 중기과정 수료자 우선선발, 영상관련학과 재학생, 졸업생
접수기간 2011.2.13(월) ~ 3.23(금) 면접전형 2011. 3. 30(금)~31(토) 합격자 발표 2011. 4. 2(월) 교육기간 2011.4. 7 ~ 8. 11 (양재동 크리스천 아카데미)
선발절차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류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 * 상적우수자 시상 / 수료증, 추천서 발급

수강비 1,500,000원 >>> 등록금 300,000원 (본 프로그램은 수강비 전액 외부후원으로 등록금만 납입)

cmca.or.kr 문의: 02)754-8004 cmca@worldview.or.kr

*커리큘럼의 기본 방향은 동일하지만 강의진행에 따라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강남교회 기독교세계관학교 5기 수강생 모집안내

다원화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직면하는 여러 현안들에 대해 성경적 관점을 개발하여 직업과 학문 등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나라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기독교세계관학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강의일정

순서	일자	강의 제목 / 강사
1강	3/20	기독교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신국원 교수 (총신대학교)
2강	3/27	하나님나라와 공적제자도 이승구 교수 (합동신학대학원)
3강	4/3	신자유주의시대의 그리스도인의 과제 김형원 교수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4강	4/17	일상생활의 영성과 직업과 소명 방선기 목사 (직장인사역연합)
5강	4/24	기독교세계관과 교육 강영택 교수 (우석대학교)
6강	5/1	한국인의 세계관 안점식 교수 (합동신학대학원)
7강	5/8	소외된 90%를 위한 적정기술 장수영 교수 (나눔과기술)
8강	5/15	문화의 미로에서 길을 찾다 추태화 교수 (안양대학교)
9강	5/22	기독교와 공의 & 인권 박종운 변호사 (기독교변호사회)
10강	5/29	통일과 북한선교 김병로 교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11강	6/5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그리스도인의 과제 장운재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12강	6/13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료예배) 송태근 목사 (강남교회)

강의기간

2012년 3월 20일(화) ~ 6월 13일(수)
매주 화요일 저녁 7:00 ~ 9:50
(강의 120분, 소그룹 나눔 30분)

장 소

강남교회 소예배실

등록방법

인터넷신청 후 입금
(강남교회 홈페이지 <http://www.knpc.or.kr>)
또는 지원서 강남교회 사무실 제출 후 입금

모집인원

80명 (입금 선착순 모집 마감)

회 비

5만원 (강의안 및 간식 제공)

대 상

기독교세계관에 관심을 가진 모든 분들

입금계좌번호

신한은행 100-026-966816
(예금주 : 강남교회 세계관학교)

문 의

02-814-7606
김정일 목사 (내선 125번)
우상현 목사 (내선 701번)

주 최

강남교회 기독교세계관학교

강사진 (강의순)



신국원 교수 (총신대학교) | 이승구 교수 (합동신학대학원) | 김형원 교수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 방선기 목사 (직장인사역연합) | 강영택 교수 (우석대학교) | 안점식 교수 (합동신학대학원) | 장수영 교수 (나눔과기술) | 추태화 교수 (안양대학교) | 박종운 변호사 (기독교변호사회) | 김병로 교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장운재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 송태근 목사 (강남교회)

가정의 주권과 교육

손봉호(대표주권)

현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기틀을 마련한 사상가는 네덜란드의 신학자, 정치가, 언론인, 학자였던 카이퍼(Abraham Kuyper)이다. 그가 제시한 중요한 사상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역주권(The Sphere of Sovereignty). 하나님께서는 사회의 영역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각 영역마다 고유한 주권을 직접 주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영역도 다른 영역의 주권을 무시하거나 침범할 수 없게 하셨다는 주장이다. 교회의 고유권한인 종교 행위에 국가가 간섭할 수 없으며, 국가의 정치 문제에 교회가 간섭할 수 없다는 것과 같다. 거의 한 세기 후인 1983년, 프린스턴 대학의 정치철학자 왈쩌(Michael Walzer)는 『정의의 영역(Spheres of Justice)』이란 저서에서 유사한 주장을 제시한 바 있다. 비록 구체적인 내용은 다소 달랐지만, 덕분에 시대를 앞서 활동했던 카이퍼의 독창성은 더욱 돋보이게 되었다.

카이퍼가 언급한 영역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교회, 가정이다. 국가와 교회가 서로의 주권을 서로 침범하면 안 된다는 것은 분립이란 원칙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가정도 국가나 교회 못지않게 고유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진다. 사실 별 관심도 없어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조금만 따져보면 결론은 쉽다. 부부나 부모-자녀 관계에 대하여 국가나 교회가 간섭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건 너무나 분명하지 않은가. 물론 가족 간이라도 국가의 공권력이 개입되어야 할 때도 있다. 신체적 혹은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등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그렇다. 하지만 부부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고, 자녀 양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국가나 교회가 결정하거나 강요할 수 없음은 매우 당연하다.

카이퍼가 영역주권을 주장하면서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인 영역은 놀랍게도 가정이었다. 사실 18세기에 국가가 종교에 간섭한다든지, 교회가 국가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은 이미 큰 논란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가정의 경우는 문제가 달랐다. 카이퍼는 당시 국가가 가정의 영역주권을 부당하게 침범한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주장은 단순했다. 자녀 교육은 국가도, 교회도 아닌 가정의 주권에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교육을 총괄하는 것은 가정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지금도 홈스쿨링이 금지되어 있어,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교육하면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이 카이퍼에게는 가정의 영역주권을 국가가 부당하게 무시하는 것이었다. 그는 교육과정과 내용을 국가가 결정하는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일생동안 노력을 기울였다. 그가 세운 네덜란드 최초의 사립대학교를 '자유대학'이라 한 것은 국가와 교회로부터 자유롭게 된 학교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그의 줄기찬 노력으로 네덜란드는 헌법을 바꿔 유럽 최초로 사립학교를 세웠다. 부모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교육비용은 100% 국가가 담당하되 교육의 질과 수준만 감독할 뿐, 교사 채용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학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유대학교도 다른 국립대학과 다름없이 국고 지원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정부는 학위 수준만 감독하고, 교수 임용과 강의에는 간섭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학법 개정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중·고등학교의 입학이 추첨에 의하여 결정되고, 국가가 등록금 한도를 설정하는 등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교과과정과 내용까지 결정한다. 카이퍼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의 주권이 전혀 존중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홈스쿨링이 허용된다는 점에서는 독일 등 대부분 유럽 국가들보다는 더 자유롭다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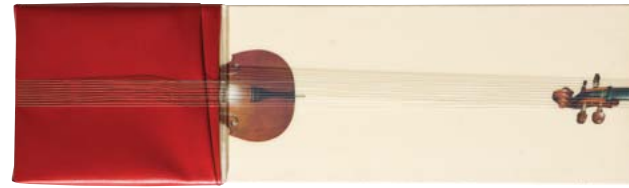
한국에서 기독교가 가정의 영역주권을 회복하려면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 기독교 학교가 운영의 투명성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하고, 교육의 질이 월등하게 앞서야 한다. 또한 기독교계는 물론 기독교 교육계의 도덕적 권위가 확실하게 인정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신앙에 입각한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받거나 가정의 고유권한을 요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한국 교회는 자녀들의 올바른 양육과 교육을 위하여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손봉호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 박사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를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 서울문화포럼 대표이사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

Contents

WORLDVIEW · MARCH · 2012



WORLDVIEW

2012년 3월호 WORLDVIEW 통권 141호



표지인물 손봉호

〈월드뷰〉는 2012년 3월호부터 12월호까지 급격히 변화하는 한국사회에서 가족구성원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와 이슈들을 조명하면서, 한국의 건강한 가족문화와 사회를 일구아가는데 필요한 교회의 사명과 역할에 관한 고민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월드뷰〉에 실리는 가족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과 헌신된 사람들의 일상 이야기를 통해 교회가 더욱 주님의 심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아파하며, 파괴되어가는 가족공동체를 살리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대표주간 손봉호
발행인 김승욱
편집인 김건주
편집위원 김승태, 김혜정, 신현기, 유경상,
장유진, 차명실
자문위원 유진희, 정종모
기자 임지연
논취 김아리나
교정 변윤미
표지사진 정일권
디자인 황정희
인쇄 완산정판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전화 02-754-8004
팩스 0303-0272-4967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2동 212-4
한강르네상스빌 A동 402호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페이스북 facebook.com/cworldview

COVER STORY

12 세계관 운동가의 가족이야기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가정_손봉호

SPECIAL

- 20 크리스천 가족의 현실적인 가정문제와 교회의 역할_송길원
- 24 성경적 결혼관_황규명
- 28 가족, '하나님의 광야학교'_양혜원

COLUMN

- 04 대표주간 칼럼 가정의 주권과 교육_손봉호
- 08 발행인 칼럼 가족이란?_김승욱
- 34 김성은 교수의 가족학이야기 주님께서 가족학자인 나에게 주신 꿈_김성은
- 37 영화이야기 크리스천 가족 내 두 언어 이야기_강진구
- 40 대중문화 속 가족이야기 TV드라마에서 우리네 가족을 본다_박진규
- 44 미술이야기 박희숙, 하늘의 곡조_서성록
- 48 음악이야기 기독교세계관으로 본 음악_이경원

CULTURE

- 16 사진에세이 마음으로 보는 풍경_정일권
- 58 유머 아담의 호기심_손봉호

BOOK REVIEW

- 52 우리는 존 요더와 어디까지 같이 갈 수 있을까?_이승구

NEWS

- 59 월드뷰 뉴스 & 독자후기



좌측의 QR코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는 네이버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에서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한 실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가족이란?

문득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일지 궁금해졌습니다. 동거하지 않는 부모형제는 가족 범주에 들어갈까요? 작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가족 실태조사'의 답변이 놀랍습니다. 함께 살지 않는 부모는 가족이 아니라는 응답이 20%, 배우자의 부모는 가족이 아니라는 응답이 50%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핵가족 제도로 바뀌면서 가족을 동거의 개념으로 생각하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혈연과는 별개로, 함께 사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정의하게 된 것이죠.

이제는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23.3%에 이르러 2인 이상 가족 세대를 넘어섰습니다. 심지어 동성부부로 이루어진 가족도 생겨났습니다. 동성이 결혼하면 자녀도 낳을 수 없고, 가족의 근본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2월 7일 미국연방법원은 캘리포니아주가 제정한 동성결혼 금지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기독교가 가장 강한 미국이지만 비성경적인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혼 문제는 더 이상 사회 관심사에 끼지도 못하고, 한부모 가정이 많아지면서 교과서에는 남녀가 함께 나오는 부모 모습을 신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득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일지 궁금해졌습니다. 동거하지 않는 부모형제는 가족 범주에 들어갈까요? 작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가족 실태조사'의 답변이 놀랍습니다. 함께 살지 않는 부모는 가족이 아니라는 응답이 20%, 배우자의 부모는 가족이 아니라는 응답이 50%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핵가족 제도로 바뀌면서 가족을 동거의 개념으로 생각하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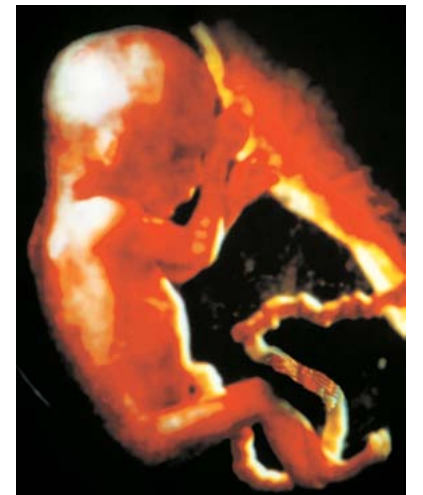
영양과 위생상황의 개선으로 더 오래 살게 되었지만, 자녀를 적게 갖다보니 노령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테드 피시먼의 『회색소크』에 의하면, 현 세상에서는 한 시간마다 세계 평균수명이 11~15분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하루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예상수명은 5시간씩 늘어나는 셈이지요. 반면 아이는 적게 낳아 노인비중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등 각종 전쟁 후 발생한 베이비붐 세대가 포함되면서, 고령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인류가 현재 겪고 있는 고령화는 과거 로마시대 이후 처음 맞는 큰 변화라고 했습니다. 로마인의 기대수명은 25년이었으며, 1900년까지도 세계 평균 기대수명은 30세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물론 유아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이지만, 위험한 유년기를 넘긴 사람도 45세 이상 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전 세계 평균 기대수명은 64세로 늘어났습니다.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2006년에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hyper aged society)'에 들어섰습니다. 그 뒤를 독일이 따르게 되었고 말입니다. 서양에서는 고령자를 정부가 보살피지만, 유교문화권에서는 가정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유교적 전통은 평균수명이 겨우 35세일 때 잘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효도하는 자식들의 부담이 훨씬 적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평균수명 83세가 넘는 지금,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격차사회', '네트카페 난민', '무연사회' 등의 특집 다큐멘터리를 연이어 쏟아내며 고령화로 인한 부작용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주노인, 망주(妄走)노인, 고족(孤族), 코슈족(孤舟族) 등 사회문제화된 노인을 가리키는 표현들도 새로 생겨났습니다. 빈부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일본이지만, 7~80대 빈부격차는 매우 커서 우리나라 평균보다 심합니다. 한번은 생활보호중지로 굶어죽은 사람의 일기 내용이 알려졌는데, '주먹밥 하나를 먹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적혀 있어 일본열도가 충격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동양 문화는 공동체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가정이 튼튼하지 못할 경우 더 심한 외로움과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친구를 만들면 된다지만, 끈끈한 인간관계 형성이 어디 그리 쉽던가요. 캐나다, 미국, 영국, 스웨덴 등 서구사회는 친구와 만남이 거의 없는 비율이 5~10%에 불과한 반면, 일본(34%)과 한국(22%)은 매우 높습니다. 일본 정부에 의하면 혼자 사는 65세 이상 남자의 40%가 절친한 친구가 없고, 25%는 이웃과 대화조차 나누지 않는다고 합니다. 퇴직 후 시간은 넘쳐나는데, 갈 곳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다 보니, 매년 3만 명이 넘는 자살자 가운데 노인이 1/3을, 특히 남자가 7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후지산 주변 삼림지대는 '자살숲'이라는 별명까지 붙어있다 합니다.

최근 급속히 성장한 중국도 가족문제로 진통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로 한 자녀 정책을 시행한지 33년. 이 정책으로 약 4억 명 정도의 인구증가억제 효과를 봤지만, 앞으로는 관련 사회문제가 많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소황제'라 불리는 자녀 한 명당 부모 둘, 조부모 넷의 1-2-4 구조가 고령화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각 세대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생산가능자 한 명에 부양해야 할 노인은 총 6명이 되게 됩니다. 세계 인구의 1/5을 차지하는 중국은 60세 이상 인구가 2009년에 이미 1억 6,700만 명이었습니다. 2025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세계의 1/4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때 일부 지역의 고령인구비율은 일본보다 더 높아질 것입니다. 국가 재정이 아직 넉넉하지 못한 중국 정부는 고령자 부양을 가정에게 넘기려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 부모가 자식을 고소해 생활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했습니다. 자녀가 최소한 2주일에 한번 방문하지 않으면, 경고를 받고 그래도 가지 않으면 7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60대의 부자 린씨 부부는 매달 최소한 두 번 찾아오는 자식에게는 1,000위안을 주기로 하고, 손자를 데리고 오면 보너스까지 준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출처: 중국 인터넷 신문 사이트인 <상하이데일리>). 사회주의 국가도 돈과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은 자녀의 수는 1.23명으로, 세계 222개국 중 217위 수준입니다. 이렇게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노후 준비는 최하 수준입니다. 인구의 15%에 이르는 베이비부머 세대(1955-63년생)가 매년 50만 명씩 은퇴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은퇴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370만 명의 베이비부머 가구주 중 최소한의 노후자금(3억6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24.3%에 불과하다는 연구발표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녀들도 부모부양을 의무로 여기지도 않으니 자식에게 기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창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자영업자가 느는 진풍경이 생겨납니다. 창업할 여력도 없는 은퇴자들은 새 일터를 찾고 말입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최고연령층(5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63.7%로 2000년 이후 역대 최고였습니다.



현 출산율이 유지된다면 베이비붐 세대가 다 은퇴하는 2018년 이후에는 잠재성장률이 2%대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저출산, 고령화 등의 사회 문제는 분명 극복해야 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영철 연구위원은 작년 11월 '미혼율의 상승과 초저출산에 대한 대응 방향'이란 논문에서 동거와 혼외출산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 연구소에서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윤리를 무시하는 처방을 공공연하게 내놓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월드뷰는 2012년 3월부터 12월까지 급격히 변화하는 한국가족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와 이슈들을 조명하면서, 한국의 건강한 가족문화와 사회를 일궈나가는데 있어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고민하려 합니다. 특히, 월드뷰에 실리는 가족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과 사람들의 일상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심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아파하며 파괴되어가는 가족공동체를 살리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

김승욱 (발행인, 중앙대 교수)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가정

월간 [월드뷰]는 2012년 중심 주제인 '가족'에 관한 연속 특집을 시작하면서, 대표적인 기독교세계관 운동가인 손봉호 장로로부터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론적 정리와 더불어 삶의 현장 속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저 그런 가정

나는 강연이나 설교를 하거나 글 쓸 때, 가능하면 우리 가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철저히 사적인 공간을 세상에 드러내는 건 마치 속옷을 보이는 듯 좀 어색하다. '아내 자랑하는 자는 깡그리 미쳤고, 자식 자랑하는 자는 반쯤 미쳤다'는 말을 나는 어느 정도 믿는다. 그렇게 광고해 놓으면, 다른 남자들이 탐나서 그 잘난 아내 업어 가면 어찌려고! 자식 자랑도 그렇다. 요즘 자기 아이들은 모두 천재라고 믿는 부모가 한 둘이 아니다. 하지만 그게 너무 심하면 사람들이 믿지도 않을 뿐 더러, 괜히 질투만 받는다. 그렇다고 자신의 가정을 홍보는 것도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다. 스스로 못났다고 자폭하는 셈이니 말이다. 어쨌든 특별히 상담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정 문제는 소중한 보물처럼 꼭꼭 숨겨두고 가족끼리만 즐기는 것이 최선이다.

사실 우리 가정 이야기는 일부러 시간 내어 읽고 들을 만큼, 도움 되거나 가치 있는 게 많지는 않다.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젊은이들에게는 무미건조하고 고리

타분하게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럼에도 이 글을 쓰는 것은 전적으로 편집자의 요청 때문임을 먼저 밝힌다. 가정을 다루는 이번 특집호에 마침 내 사진이 표지로까지 실리니, 우리 집 얘기를 좀 하는 게 어울린다 하였다. 혹 독자들 가운데 평범한 가정생활이 잘못된 건 아닌가 살짝 마음 쓰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이 글의 소기 목적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

누가 나의 건강이 어떠냐고 물으면 나는 그저 "그럭저럭 잘 지냅니다!" 하고 대답한다. 자랑할 만큼 튼튼한 건 아니지만, 큰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위해 특별히 하는 일도 없는 탓이다. 다만 권장되는 관련 정보에 나름 충실하려 하긴 하지만, 그것도 잘 지키긴 어렵다. 그러다보니 꼬집어서 말할 만한 대답이 '그저 그렇게 지낸다'가 된 것 같다.

누가 우리 가정이 어떠냐 하고 물어도 나는 아마 "그저 그렇지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특별히 말할 게 없는 '평범한' 가정이니 말이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에 대

해서 꼬집어 쓸 게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건강에 큰 문제가 있으면 관련해서 할 말이 많아진다. 같은 맥락으로, 가정에 대해 할 말이 따로 없는 건 우리 집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속상한 일도, 크게 걱정하거나 싸울 일도 없으니 좋지 않겠는가? 어떤 사람이 자기 가정 얘기를 장황하게 하기 시작하면, 내용이 좋든 나쁘든 나는 좀 불안해진다. '저 사람 가정에 혹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냐?' 하고, 나는 가정이 행복해야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잘 안다. 때문에 가정에서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 좀 측은하게 느껴지고 신경이 쓰인다. 가정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것은 가정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가 많기 때문이리라.

보수적인 부부관계

다른 면에서는 안 그런 거 같은데, 우리 부부관계는 전형적인 한국 부부처럼 매우 보수적이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서로에게 "사랑해"라는 말 한 마디 한 적이 없다. 그런 말은 저 서양의 '상 것'들이나 아직 철들지 않은 '젊은 것'들이나 할 소리지, 점잖은 양반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다. 결혼을 늦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어른이어서 그랬던 걸까. 일생동안 말(言)을 가지고 살았다 해도 과연 아닐 만큼 내겐 말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 부부는 역시 "옹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란 속담에 충실했던 것 같다. '사랑한다고 꼭 말로 해야 하나?'

물론 부부가 마주 앉아서 오순도순 재미있게 이야기 하는 경우도 흔치는 않다. 나는 "아(아이)는?", "묵자!(묵자)", "자자!" 하루 세 마디만 하는 경상도 사나이의 전통에 비교적 충실하다. 바깥에서 일어난 일들도 아내에게 상세히 말하지 않는다. 좋은 일은 가끔 보고하지만 내 자랑은 더욱 말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는 물론, 가족에게도 자기 자랑은 좀 가볍게 보이기 때문이다. 기분 나쁜 일은 더더욱 말하지 않는다. 나 혼자 불쾌한 걸로 충분하지, 가족까지 기분 나쁘게 할 필요가 없잖은가. 걱정스럽고 안 좋은 일은 서로 나눠야 정신 건강에 좋다고 하지만, 웬만해서는 혼자 견디고 해결하려 한다. 하나님이 궁홀히 여겨주신 덕에 아직까지 내 정신건강은 양호하다. 아내는 나보다 더 입이 무겁다. 그래서 가끔은 정말 깜짝 놀랄만한 일인데도 며칠 후에야 말하는 경우도 생긴다. 우리의 이런 모습에 어찌면 그렇게 재미없이 사느냐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법하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별 탈 없이 잘 산다. 서로 철석



같이 믿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신뢰만 있으면, 대부분의 문제는 다 해결되고 모든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순조로운 자녀교육

아이들도 별로 속을 썩이지 않기 때문에 평범하게 잘 지낸다. 그렇게 많이 잔소리 하지도 않았고, 대학 진학으로 큰 소동을 일으킨 일도 없다. 애들한테 내가 가장 많이 한 잔소리라면 “애들아, 잠 좀 자! 좀!” 정도?

애들이 어릴 때는 텔레비전을 집에 두지 않았던 게 자녀 양육에 특이한 점이라 할 수 있겠다. 나는 영상매체가 상당할 정도로 사람의 상상력과 사고력의 발전을 방해한다는 이론을 갖고 있다. 물론 아이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응하지 않았다. 자랄 때 불평하던 큰 아이 역시 지금은 자기의 두 딸을 위해 TV를 없애버렸다. 나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과 어릴 때 했던 항의가 절없는 것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이렇듯 텔레비전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가 우리 가문의 전통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내가 텔레비전에 비교적 자주 출연한다는 건 역설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어릴 때 교회에서 ‘주일성수’에 대해서 엄격한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월요일에 아무리 중요한 시험이 있어도 주일에는 공부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고등학교와 대학 진학에도 실패할 뻔 했다. 하지만 자녀들

에게는 그 정도로 엄격하게 주일성수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애비와의 경쟁심 때문인지 몰라도 상당히 철저하게 주일을 잘 지켰다. 큰 아이는 가려던 외고 면접이 주일이라 그 학교 가는 걸 포기했고, 고 3 때도 주일 특별수업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를 가상히 여기셨는지 원하는 대학에 합격시켜 주셨다. 사교육을 받거나 재수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물론 자기 능력에 맞는 학교에 지원했기 때문에 무리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요즘 많은 가정에서 대학입학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기에 혹 참고가 될까 해서 말한다.

자녀들의 유학 관련 오해가 있었다.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교수 월급으로 어떻게 아들을 해외에 유학시킬 수 있는가?” 하고 의문을 제기했던 것이다. 이 지면을 통해 해명이 되면 좋겠다. 우선 큰 아이는 벨기에에서 내가 교수로 있던 대학에 다녔기 때문에 등록금을 전액 면제받았다. 아이 대학교육을 공짜로 시킨 것이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당시에는 그런 특혜가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벨기에는 박사과정의 학생이 해외에서 열리는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하면, 그 여비 및 호텔 숙박비까지 보조해 준다. 우리 큰 아이는 그 혜택을 받고 벨기에에서 공부하고 학위를 받았던 것이다. 생활비는 한국 회사 지사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곳 한국인 가정 자녀들에게 과외를 하면서 벌어들였다고 한다. IMF때 생활비가 부족해서 고생 많이 했다는 사실을 최

근에야 듣고는 그 때 돈을 보내주지 못한 것에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둘째가 다닌 학교는 내가 근무하던 곳이 아니었다. 그래서 학비를 전액 지불했는데, 우리가 좀 검소하게 살기 때문에 대학교수 월급으로도 어려움 없이 공부시킬 수 있었다.

아끼는 가정경제

우리 가정에 좀 특별한 것이 있다면, 가능한 한 검소하게 살면서 돈을 아낀다는 사실이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좀 지나치다 할 정도로 소비를 절제한다. 전기와 돈을 아끼기 위해 여름에 에어컨도 두지 않고, 겨울에는 비교적 춥게 살고 있다. 세수에 사용한 물은 변기에 부어 다시 사용하고, 빗물을 받아 보관했다가 채소밭에 뿌린다. 소형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손님이 없으면 외식도 거의 하지 않는다. 사치품을 사지 않을 뿐 아니라, 누가 비싼 물건을 선물하면 다시 선물하거나 바자회에 내 버린다. 우리 식구 몸에는 고급 음식이나 사치품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유별난 이유는 내가 아주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 때는 모든 사람이 물자를 아끼는 시대였기 때문일 것이다. 거기다 우리 부부가 네덜란드에서 받은 훈련도 크게 작용한 것 같다. 현재 유럽이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해 있지만, 네덜란드는 독일과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경제를 누리고 있다. 흔히 자본주의

에서는 ‘소비가 미덕’이라 하고, 이론적으로도 그럴듯하게 들린다. 허나 네덜란드와 독일은 소비절제로 세계에서 으뜸가는 나라들이다. 그런데도 경제가 그렇게 튼튼한 걸 보면 소비가 미덕이란 말에 회의가 간다.

검소와 절제의 습관 덕에 우리 집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연금으로 생활하고도 남아, 기부와 헌금에 인색할 필요가 없다. 나의 서재에는 “너무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은데, 충분히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쓰인 명구 패가 있다. 그걸 볼 때마다 ‘반드시 그렇지 않은데... 나는 충분히 갖고 있잖아.’ 하는 생각이 든다. 식구들 중 누구도 우리가 가난하다거나 지금보다 더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매우 큰 부자다. 물론 마음만 그렇게 먹는다 하여 하여 모두 우리처럼 만족해할 수 있는 건 아닐 것이다. 소득이 너무 적어 고통 받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님을 잘 안다. 그러나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쓸 것을 충분히 주셨다 믿고 감사한다. 실제로 어렵거나, 지금보다는 좀 더 넉넉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가정은 많다.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할 만큼 마음이 풍족할 수 있다는 건 어지간히 큰 축복이 아닌가. 그러기에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한다. ☺

손봉호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할 만큼 마음이
풍족할 수 있다는 건 어지간히
큰 축복이 아닌가. 그러기에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일본 시즈오카 ©2009 JE ONG IL KWON

마음으로 보는 풍경

오후의 서늘한 바람과
내 마음을 쉬게 해 줄만한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했던 시간
눈 앞에 사라져가던
그리움이 가득했던 풍경들
.
.
보고 싶습니다.

정일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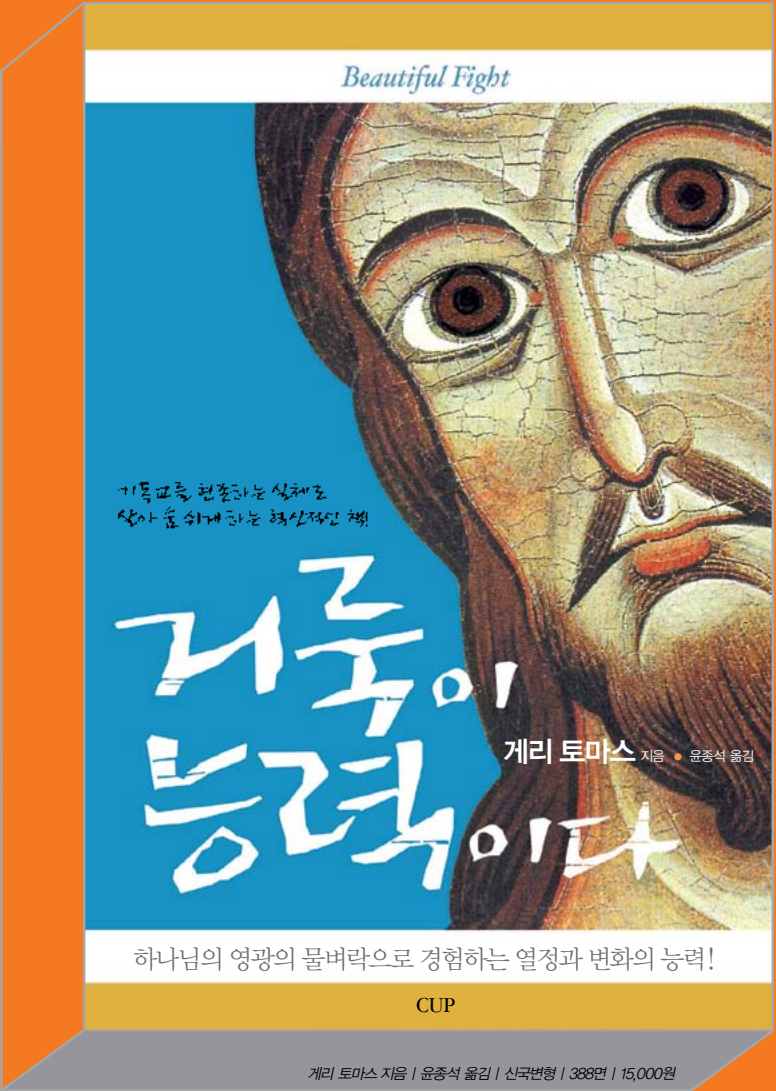
일본사진예술전문학교 초상사진과 졸업, 도쿄디자인전문학교 비주얼디자인과 졸업
블로그 <http://blog.naver.com/sg80350>



Beautiful Fight

기독교를 현존하는 실체로 살아 숨 쉬게 하는 혁신적인 책!

게리 토마스의 또 하나의 역작!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라!



변화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기 원하는 이들에게 든든한 배후동력이 될 것이다!_오정현 목사

이동원 목사
오정현 목사
적극추천!

거룩이란,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쏟아지는 영광의 물벼락에 흠뻑 잠겨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다.



Worldview Special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다

'가족 붕괴', '가족 해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요즘이다. 홀로 외로이 살다 죽음을 맞이하고 여러 날이 흐른 후에야 남은 자들에게 발견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반대의 모습도 적지 않다. 가족만을 위해 사는 이들, 오로지 자신들의 가족만을 위해 사는 이들로 가득하다. 다른 가족이야 어떻게 되던, 심지어 자신마저 어떻게 되던 가족을 위해 사는 이들이 있다. 오늘 우리에게 '가족은 무엇일까? 성경은 '가족'에 대해 무엇이러 말하고 있을까? 가족으로 태어나 가족으로 살아가는 우리다.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만나기 위해서 가족의 의미를 질문해 본다.



"교회는 가정의 질적 향상에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때문에 가정 사역이란 교회 조직에 딸린 단순한 일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선교와 같이 그것은 교회 생활의 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

크리스천 가정의 현실적인 문제와 교회의 역할 송길원

"가정 사역의 바탕은 사도행전적인 교회여야 하며, 이를 통해 교회와 가정이 연결되어야 한다.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예외로 한다면, 교회는 기본적으로 가정이 모여 이루어진다. 바른 교회의 전제는 바른 가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성경적 결혼관이 바로 세워져야만 하는 것이다"

성경적 결혼관 황규명

"아무런 노력이나 수고 없이 회복한 가족은 없다. 사실 가족은 '하나님의 광야학교'이다.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치열하게 훈련받아야 하는 학교이다. 이 학교에서의 배움과 훈련을 잘 감당하면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 '하나님의 광야학교' 양혜원



크리스천 가정의 현실적인 문제와 교회의 역할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비바람이 몹시 부는 밤이었다. 우르르르 팡. 천둥번개는 무섭기만 했다. 전기마저 끊긴 춥고 긴 겨울 밤. 가족들은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서로를 끌어안지 않으면 안 되었다. 새벽녘, 아빠 품에 안겨 잠들었던 아이가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물었지.

“아빠, 어젯밤 하나님은 어디서 무얼 하고 계셨을까요?”

잠시 당황하던 아빠가 아이를 꼭 끌어안고 이렇게 속삭인다.

“애야, 어젯밤 비바람 천둥 번개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침을 만들고 계셨을 거야. 찬란한 이 아침을 말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는 둘 밖에 없다. 바로 가정과 교회다. 가정은 창조사역의 완성이고, 교회는 구원사역의 절정이다. 가정 안에 사랑과 용서, 은혜와 긍휼, 구원과 십자가가 있다면 우리는 이를 가리켜 '미리 맛보는 천국'이라 할 수 있다. 교회 역시 이러한 가정 같은 분위기가 유지된다면, 사이즈가 아무리 커져도 지상에서 맛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정은 축소된 교회, 교회는 확대된 가정이라 부른다.

성경은 이른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해야 한다고 일러 주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형통케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 위에 두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나의 이름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민 6:22-27. 메시지 성경)

매일 아침, 자녀들의 머리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해 보면 어떨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을(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을(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의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의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시 20:1-2,4-5)

이래서 우리 모두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꿈꾼다. 그런데 과연 우리 현실은 그러할까? 궁금증은 여기에 있다.

밀양, 완득이 그리고 도가니

세 영화 모두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하거나 모티브로 삼았고, 교회와 가정을 묘사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예상치 못했던 흥행 역시 그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거머쥔 <밀양>이 용서를 화두로 던지며 교회에 말을 걸어왔다. 메시지는 간결했다. “교회가 바라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교회로”

이어서 등장한 <완득이>에서는 교회가 좀 더 편안하고 익살스럽게 묘사되기도 한다. 담임선생님 일명 '똥주' 좀 죽여 달라는 완득이의 기도, 주인공의 간절함과 상관 없이, 그 자체가 굉장히 유머러스해서 보는 사람들은 크리스천이든 아니든 모두 웃게 된다. 완득이 담임은 교회에선 전도사로 세상 부정에 맞서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받고 있는 불평등을 없애고, 그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다. 겉모습은 전혀 크리스천 같지 않지만, 그가 하는 일은 분명 이 땅에서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이였다.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거머쥔 <밀양>이 용서를 화두로 던지며 교회에 말을 걸어왔다. 메시지는 간결했다. “교회가 바라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교회로”

<밀양>이 말을 걸어왔다면 최근 큰 반향을 일으킨 영화 <도가니>는 다소 시비조다.

귀가 들리지 않는 청각 장애 아동, 더러는 지적 장애로 판단력이 부족한 아이들까지 성폭행하는 건 분명 정상이 아니다. 이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교장선생은 크리스천, 그것도 장로다. 사무실에는 커다란 십자가와 성경 구절 액자가 버젓이 걸려 있고, 심지어 무슨 배지인 양 금빛 십자가를 옷에까지 달고 있다. 가해자들이 재판 받는 법원 앞에서 교장의 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고 찬양하며, 오히려 피해 아동들을 사단이라고 몰아가기도 한다. 영화 속 가정은 일탈과 상처, 갈 데까지 간 타락의 모습을 보인다.

보다 안타까운 건, 영화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는 불편한 '현실'이다. 최근 화제가 되었던 A양 음란 동영상의 주인공은 유수한 기독교 NGO 홍보대사였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유명 연예인들의 잇단 자살 소식에 기독교인들은 더 큰 충격을 받기도 한다. 그들이 기독교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혼율에서도 기독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5%로, 전체평균 45%에 육박한다. 이 모든 것들은 '기독교인의 가정은 건강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무너뜨리는 통계다.

이제 교회가 나서야 한다

메이스는 결혼과 가정에 대한 교회 사역에서 아쉬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럴 때 사람들은 ‘교회라면’ 가정이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필요한 도움과 지원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그 어떤 프로그램도 나타나지 않았다. 오늘날 세계에서 만연된 기독교인 가정생활의 실패는 복음을 전하는 데 분명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다”

“내가 대만에 온지 여러 해에 경향 각처로 널리 다니며 인심이 어떠한 것과 풍속이 어떠한 것을 대강 열람하니 매우 고마운 일도 많고 또 심히 섭섭하고 분한 일이 몇 가지 있삽데다... 남보기에 섭섭한 일과 분한 일은 큰 흠이요, 큰 수치인즉 불가불 고쳐야 할 터인데 시방 보기에 예수교인 밖에 능히 고쳐 행할 자가 없다 하노니 교 밖의 사람이 어떻게 일조일석으로 옛 풍속에 젖은 것은 변할 수 있으리요”

(그리스도신문 5권 32호, 1901.8.8)

선교 초기 기록물들에 의하면, 한국 교회는 실제로 사회 전반의 병폐를 치료하는데 매우 열심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글학당의 문을 열고, 금주금연운동, 축첩제도 폐지운동과 함께 망국병이라 할 수 있는 노름추방운동을 펼치기도 했었다. 특히 여성과 가정에 관한 관심이 지대했음도 보게 된다. 그야말로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했던 것이다.

한국 교회가 이제라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감당하려면, 속히 가정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미 한 발 늦은 건 아닌가 싶은 생각



도 든다. 지난 십 여 년 사이, 곳곳에 세워진 복지관에서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먼저 시작했다. 더 놀라운 것은 일반 기업에서조차 앞 다투어 가정문제의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경영에 가족개념을 도입하고, 사원 연수 시 부모-자녀 혹은 부부의 관계 회복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심지어는 가족들을 돌보도록 하는 홈 스위트 홀리데이(home sweet holiday) 휴가까지 제공하고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는 또 하나의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교회는 선교세미나나 기도회 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성장 관련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제공해 주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부부 세미나, 밀월여행이나 성 세미나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가정 목회는 그렇게 추상적인 구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교회를 돌볼 때 신자들의 부엌까지 챙겨보았다는 말을 예사로 새겨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가정상'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께서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전도서 9:9)

가정 사역에서는 위에서 말한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고, 가정에서의 제사장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어야 한다.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고, 결혼했다가 혼자 살게 된 사람들이 참된 만남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도 사역의 일부가 될 수 있다. '가정 사역'이라는 말이 장식물처럼 여기 저기 갖다 붙여지는 게 아니라, 교회의 정말 소중한 사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각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리라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가정사역자 셀의 주장은 지금도 유효하다. “교회는 가정의 질적 향상에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때문에 가정 사역이란 교회 조직에 딸린 단순한 일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선교와 같이 그것은 교회 생활의 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



송길원 목사 가족생태학자, 행복발전소 하이패밀리 대표

성경적 결혼관

가정은 모든 인류사회의 기본 구성요소이다.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면 자연스럽게 사회, 국가, 교회도 흔들리게 된다. 사회학자들은 “현대 가정이 혼란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 미국 백악관에서 ‘family’, 즉 가정(가족)에 대한 학회가 열린 적이 있었다. 100년 전이라면 “What is family?(가족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논란거리도 되지 않았을 터인데, 언제부터인가 명확히 답하기조차 어려워졌다. 성 혁명, 이혼의 급증, 다중 부모, 이복형제, 결혼을 주장하는 동성애자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리라. 학회에서 내린 가족에 대한 결론은 ‘한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었다.

가정의 기초와 출발점은 다름 아닌 결혼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결혼에 대한 개념과 인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옛 가치들이 도전받고 있는 시기에 살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무엇을 믿어야 할지, 필요한 도움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결혼과 가정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바로 하는 건 분명 의미 있는 작업이다.

결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게 그 첫걸음이 될 수 있겠다. 결혼을 인류번식만을 위한 합법적 짝짓기 제도로 여긴다면 큰일이다.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그렇다고 성적 결합과 동일시해서도 안 된다. 결혼은 보다 더 크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예식에서 서약을 통해 성립되며 사회의 법적 개념으로는 혼인신고를 통해 인정받고 보호받게 된다.

그렇다면 결혼의 성경적 개념은 무엇인가?
 첫째, ‘결혼이란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창세기 2:18-24)’는 점이다. 인간이 편의상 만든 게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다른 듯하다. 편리하자고 만들었는데 이제는 너무 불편하니까 없애버려도 된다고 말한다. 머지않아 결혼하는 사람보다 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라고 예측하는 기관도 있다. 인간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답게 살 수 없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그 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소요리문답 1번). 결혼에서의 목적은 결국 가정을 이룬 부부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데 있다.

사람들에게 “왜 결혼을 하려고 하는가?” 혹은 “왜 결혼했는가?”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답을 듣게 된다. 하지만 대체로 요약하면 ‘행복하기 위해서’이다. 행복을 원하는 게 나쁠 것은 없다. 다만 그것이 결혼의 유일한 혹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면 결혼을 성경적으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거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너, 즉 ‘우리’의 행복을 위해 결혼한다고 말한다. 사실은 바로 ‘나’만을 위해서인 경우가 많으면서 말이다. 그러다보니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더 이상 결혼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자신의 행복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더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하면, 아마 이렇게 항의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불행한데도 하나님을 위해서 억지로 살라는 말이야?”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신중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무엇에 성공하기 원한다면 그것을 잘 연구할 필요가 있다. 가령 어떤 운동선수로 성공하려면 그 운동법을 배우고 규칙을 숙지해야 한다. 오케스트라 연주자의 경우 악기는 물론, 오케스트라와 지휘 내용을 잘

이해하고 따라야 성공할 수 있다. 결혼에서도 마찬가지다. 성공하여 행복하고 싶다면 결혼이 어떤 것인지, 자기의 역할을 무언지 잘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가장 빠른 길은 결혼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것. 바로 그 분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지식과 지혜를 얻는 것이다. 결혼의 본질은 알지도 못한 채, 나의 행복만을 추구한다면 성공적인 결혼을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이 결혼에서 행복한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이 결혼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 행복에는 무관심한 분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창세기 2장을 펼쳐보자.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사람이 외롭지 않게 서로 위로하고 붙들어주며 동반



자로서 행복하게 살도록 배려해 주심을 느낄 수 있다. 그들이 힘을 합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말씀이 별도로 부연되지 않은 건, 그것이 이미 창조의 뜻 가운데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인간의 궁극적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열심히 잘 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때도 역시 같은 이치로 생각해볼 수 있다. 만약 차가 고장이 났다면 그 차를 만든 회사의 서비스 공장으로 갈 것이다. 아무래도 그걸 만든 사람이 잘 알고 잘 고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갈지 분명해진다. 그 결혼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언젠가 강의를 하던 중, “여러분은 결혼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부인은 친정으로 가고 남편은 술집으로 갑니다” 라는 답이 나왔다. 한바탕 웃고 넘겼는데, 생각해보니 현실과 다르지 않다. 상황이 더 악화되면 상담실을 찾거나 정신과를 가기도 하고, 마침

내는 변호사를 구해 가정법원으로 가게 된다. 안타깝게도 기독교인 중에도 그런 경우가 많다. 결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말로는 인정하지만 마음으로는 중시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간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자. 먼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문제를 살펴보고, 그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 시작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노력해도 당사자 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을 필요가 있다. 이 때 성경적 결혼관에 입각한 상담을 받는 게 중요하다.

결혼의 성경적 개념에 대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볼 것은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라는 점이다.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있다. 짝지어 결혼한 짝을 버리는 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것과 동일하다(잠 2:17)고 했다. 아내에게 진실하지 않은 남편들을 책망하는(말 2:14) 말씀도 나와 있다. 동반자 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있는 이 두 구절은 결혼의 언약적 측면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언약은 서로의 성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 정도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것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왜 결혼을 만드셨는가?”에 대한 답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창 2:18)’이다. 그러나 단지 고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우리는 결혼을 해서도 외롭다는 걸 안다. 그렇다면 하나님 뜻에 합당한 동반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에베소서 5장을 참고해보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하여 설명한다. 그러다가 5장에 이르러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 같아야 한다고 비유로 말하고 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함 같이 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아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창 2:23)’이므로 아내 사랑은 곧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도 같다(엡 5:25-28).

베드로전서 3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다. 그런데 아내(1절)와 남편(7절)에게 각기 ‘이와 같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 의미는 2장에서 설명되고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 특히 그의 고난에 대해 말한다. 고난 속에서도 보복하거나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결국 우리를 위한 구원이 은혜로 이루어졌다. 이 말씀 후 결혼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와 같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에베소서와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놓고 볼 때, 가르침의 초점은 무엇인지 짐작해 볼 수 있다.

결혼에 있어서 부부가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살라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과 성화를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긴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런 것들은 외로움과는 관계가 없다.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닮으라고 한다. 바울은 이런 이유 때문에 창세기 2장을 직접 인용하면서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니라”고 말하고 있다. 바울이 봤을 때 결혼의 출발점은 단순히 외로움을 면하는 데 있지 않았다. “이 비밀이 크도다(엡 5:32)”라며 신비한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본 것이다. 결혼이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다면 창세기 2장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것은 ‘결혼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준다’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사실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다.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면 단연 ‘관계성’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특별히 다른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는



물론, 다른 사람들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성과 감정,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이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며 그의 분부하신 일을 맡아 수행하는 데 쓰인다. 또한 인간 상호간에 관계를 맺으며 협력하고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도 필수요건이 된다. 특별히 주님께서 명하신 계명과 깊은 연관이 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라는 큰 계명 말이다. 이를 지키고 수행하는 기본적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고, 그 출발점은 결혼이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자기사랑’에 심취되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 마치 현대 문화의 기본 전제가 되어버린 듯하다. 오죽하면 “스스로 건강하기 위해 자신을 사랑할 때, 우리는 선한 사람들이다”라는 말까지 나왔을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19:19)”는 말씀조차 개인주의적 시각으로 영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식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자기 자신과 재물을 너무 사랑했던 젊은 부자에게 하셨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라는 의미로 말이다. 말씀의 골자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간결하고 명쾌하다. 현대 현실에서는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오용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강단에서조차 “성경 모든 곳에서 ‘건강한 자존감’을 가르치고 있다”는 듯이 설교되고 있다. ‘자기애(self-love)’ 이론이 개인주의를 숭배하는 문화로부터 나왔다는 걸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은 모르고 있다. “먼저 당신 자신을 사랑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을 계명처럼 여기기까지 한다. 그럴 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편한 대로 인간 마음에 대한 이상한 전제를 만들어낸 것이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문화가 제시하는 치료법, 즉 ‘자기 사랑을 더욱 증진시키는 것’은 실제로는 마음의 병을 더 심화시키는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

자기 사랑에 몰입하는 두 사람이 결혼했을 때,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정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겠는가? 결혼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는가? 요즘 결혼 시기가 점점 늦춰지고 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몰입하고 있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결혼을 주저하게 되는 건 아닐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고, 상대방도 나를 사랑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미심쩍다. 문제는 상대방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기를 사랑하라”는 금과옥조(?) 같은 메시지는 나만 들은 게 아니기 때문이다.

크리스천 부부는 자기에만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그러면 자신도 사랑받고, 세상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삼위의 인격이 온전히 하나인 하나님을 인간 차원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두 부부가 하나 된 모습을 보임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세상에 보여줄 수도 있다. 가장 좋은 예는 부부가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 대속으로 죄를 사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해 주시는 말이다.

가정 사역의 바탕은 사도행전적인 교회여야 하며, 이를 통해 교회와 가정이 연결되어야 한다.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예외로 한다면, 교회는 기본적으로 가정이 모여 이루어진다. 바른 교회의 전제는 바른 가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성경적 결혼관이 바로 세워져야만 하는 것이다. 모든 크리스천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황규영
 총신대학교 상담대학원장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신학석사(M. Div.),
 목회상담학박사(D. Min.), 실천신학교수
 한국성경적 상담 연구원장
 사랑의교회 협동목사

저서: 성경적 상담의 원리와 방법 (바이블리더스, 2008)
 역서: 위기의 시대 기회의 시대 (폴 트립, 디모데, 2004)
 치유와 회복의 동반자 (폴 트립, 디모데, 2007)

가족, '하나님의 광야학교'

☞ 양혜원(총신대 사회복지학과)

'화목한 가족' 많은 사람들이 꿈꾸지만 이는 일종의 허상에 가까운 것인지도 모르겠다.

가족은 사람들이나 사회가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남편과 아내가 인격적·육체적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가족의 중심이 되도록 하셨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무너졌다. 자연히 부부 간의 연합도 깨어졌고, 부모와 자녀 간의 올바른 관계나 형제·자매의 우애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부부 간에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무엇을 바라겠는가.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형이 아우를 죽이는 등 가족들이 서

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심지어는 해하는 장면을 성경 속에서 찾기도 어렵지 않다.

우리 사회의 가족도 이런 모습에서 더 하면 더 했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외도나 폭력 등 과거로부터 지속되어온 부부관계의 상처들은 딱히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오히려 '부부싸움은 갈로 물 베기'라는 말이 낫설게 느껴질 만큼, 이혼은 부쩍 늘었다. 특히 오늘날 가정에서는 부모 역할에 심각한 왜곡과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 교육에 대한 열기가 새삼스러울 건 없지만, 최근에는 그 도가 너무 지나치다. 자녀의 대입과 세속적 성공에 집착하는 양상이 광기에 가까운 맹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해 말 보도된 한 사건은 깨어진 부부관계, 왜곡된 부모-자녀관계의 실상과 그 참혹한 결과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서울의 한 고등학생이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8개월 간 시신을 안방에 숨겨두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년째 별거 중인 아버지가 오랜 만에 집에 찾아와서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고3인 그 학생은 수능 모의고사 전국 4000등 수준의 우등생인데, 어머니는 전국 1등을 강요하고 반드시 서울대 법대에 가야한다며 걸핏하면 골프채와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밥을 안 주거나 잠을 재우지 않았다고 한다. (조선일보 2011. 11. 24)

한국 가정의 부부관계는 전반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높은 수준의 아내폭력 발생율과 이혼율은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 지표이다. 2010년 여성가족부 조사결과, 지난 1년간 남편에게 신체 폭력을 당한 아내는 전체 15.3%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영국(3.0%, 2007년)이나 일본(3.0%, 2001년)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것이다. 아내 폭력은 과거로부터 지속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이다. 그 주요 원인이라 하면, 가부장제의 영향으로 아내를 남편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경향, 모든 유형의 폭력에 대해 어느 정도 허용적인 문화, 폭력을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개인 문제로 여기는 경향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최근에는 다소나마 인식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사회 전반에 팽배한 불안과 경쟁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축적시키면서 가족관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이혼율 역시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통계청의 '2010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이혼 가구주 비율은 7.3%이다. 이 수치는 10년 전의 2.3배, 20년 전의 7.3배, 30년 전의 18.1배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혼율이 급등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특이점 중 하나다. 부부관계가 서로에 대한 헌신과 믿음에 기초하기 보다는, 다분히 도구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얽혀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하겠다.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앞에서 언급한 과도한 교육

열이다. 학업에 집착하면서 자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부모의 모습은 더 이상 낫설지 않다. 세 살짜리 아이에게 영어는 물론 중국어까지 가르치려는 젊은 엄마들, 방과 후 학원 두세 군데 이상을 도는 게 기본이 된 초등학생들, 평일에 집에서 따끈한 저녁식사를 하는 중 고등학생은 거의 희귀종이 되고 만 현실. 이처럼 대다수 부모가 자녀교육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모순된 것은 실상 그들은 자녀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많은 부모들이 진학률이 높은 학교, 성적을 올려주는 학원, 수많은 입시전형 등의 정보를 줄줄 꿰고 있으나 딱 거기까지만이다. 자녀들을 다른 데 맡기며 열심히 '관리'만 할 뿐, 그들의 인격과 영적 성장을 위한 훈육에는 무관심하고 게으른 경우가 많다.

[아버지의 이해심_ 자녀의 명문대 진학 조건 중 하나. 여기서의 이해심이란 어머니가 자녀입시에 '올인' 하는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아량을 뜻함]

세간에 떠도는 우스갯소리인데, 내막을 알면 슬픈 현실이 보인다. 가족으로부터 소외된 아버지는 단순히 학원비를 벌어드려 주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로서의 역할포기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자녀에게 올인하는 어머니라고 해서 부모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 사실 문제다. 자녀의 일정을 관리하고 기사 노릇을 하는 로드 매니저(road manager)든, 아이들 학원비를 위해 밖에서 더 오랜 시간 일해야 하는 근로자든 결국 진정한 부모는 사라진 셈이다. 덕분에 수많은 아이들은



부모를 상실한 채 성장기라는 혼란의 강을 혼자서 건너고 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 역시 가족문제에서 예외가 아니다. 갈등으로 오래도록 고통스러워하는 부부들을 교회 안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통계자료를 보면, 기독교인이나 일반인의 아내폭력 발생률이나 이혼율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나친 교육열과 자녀에 대한 과잉 집착의 대열에서도 기독교인은 빠지지 않는다. 많은 기독교인 부모들도 “명문대에 가고 지경을 넓혀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며 자녀들을 몰아붙이고 있다. 문제는 ‘선한 영향력’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에서 진정성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오늘날 대한민국은 부부로서 남편과 아내를 아끼고 존경하며 살아가기에,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양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무척 어려운 나라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현실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족을 이루기 위해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부부가 먼저이다.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라도 부부관계가 탄탄해야 한다. 우리 문화는 전통적으로 가족의 횡적 축인 부부관계보다는 종적 축인 세대 간의 관계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전통적 효 사상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고, 오늘날 나타나는 자녀에 대한 ‘올인’은 그 방향이 역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가족의 중심이 부부관계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으로 연합해야 한다고(창세기 2장 24절) 가르치고 있다.

가족상담의 토대가 되는 가족체계이론에서는 가족을 하나의 체계(system)로 보고 가족 내에 여러 하위체계가 존재한다고 인식한다. 예컨대 부부하위체계, 부모-자녀하위체계, 형제·자매하위체계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하위체계들은 밀접하게 관련되면서 상호 직·간

접적 영향을 주고받는다. 특히 가족의 중심점이 되는 부부하위체계는 다른 하위체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부모역할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부관계가 가장 중요한 체계이며, 바람직한 부모역할의 전제조건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대다수 경험적 연구들은 부부갈등이 심화되면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소홀해지거나 반대로 자녀와 과하게 밀착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여 이러한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가족의 중심이면서 좋은 부모의 선행조건인 ‘부부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가 바로 ‘기리기 가족’이라고 하겠다. 기리기 가족은 자녀교육을 위해 부부관계를 전적으로 희생하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양상이다. 교회

안에서도 기리기 가족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안타깝다.

자녀의 대학입시와 세속적 성공에 집착하는 현 세대에서 반드시 비켜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부모의 엄중한 자기성찰이 필수적이다. 자녀의 교육과 성공에 집착하는 기독교인 부모들의 욕망이 지극히 세속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럴 듯하게 포장하더라도, 실은 그저 내 자식이 더 나은 지위와 더 많은 부를 누렸으면 하고 바랄 뿐이다. 자녀가 믿음의 유산 얻기를 바라지 않고, 고작 외제차나 명품백을 갖기 원하는 건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다음으로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분명히 알고, 이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기독교인들조차 광기어린 경쟁 대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하다. 바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판·검사, 의사가 되려는 줄에서 있기 때문이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가 아님을 부모가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 가운데 자녀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를 발견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자녀의 은사에 대한 확신이 서면, 그 영역에서 탁월한 기량을 쌓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고 말이다.

모범이 되어야 하고,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기독교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우리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내공’이 세상에 확실한 모범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 딸아이가 기독교 대안학교에 다니는데, 작년 수능시험이 끝나고 교목께서 학부모들에게 당부하신 기도제목에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가 실력에 비해 무척 높은 수능성적을 받았습니다. 여러모로 몹시 염려가 되니 그 학생을 위해서 꼭 기도해주세요” 세상에서는 수능 당일의 반짝 기량을 위해서 부작용이 심하다는 약도 구해다 먹인다는데... 이 정도는 되어야 구별될 수 있고,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도는 언제나 늘 필요하다. 하지만 교회마다 수능 100일 기도회를 여는 것만으로는 세상에 큰 힘을 미치지 어려울 것이다.

어떠한 노력이나 수고 없이 회복한 가족은 없다. 사실 가족은 ‘하나님의 광야학교’이다.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치열하게 훈련받아야 하는 학교이다. 이 학교에서의 배움과 훈련을 잘 감당하면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

더불어 보다 적극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가족은 그 시대의 제도와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기독교인 가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상의

가족들도 함께 그러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의 개선을 위해 힘써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 교회 밖으로는 잘 나서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가족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예컨대,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가정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크게 힘을 쏟지 못해 왔다.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이 만들어질 때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2008년 이혼숙려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이혼법 개정에도 특별히 기여한 바 없었다. 왜곡된 교육제도를 바로잡고 비뚤어진 자녀교육 열풍을 가라앉히려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노력도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다.



양혜원
충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스턴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했다. 가정폭력이나 이혼과 같이 심각한 고통을 겪는 가족을 돕는 일에 관심이 많다.



C.S. 루이스와 기독교 세계로

루이스의 명저들 속에서
기독교 보물 찾기

C. S. 루이스에 대해 누구보다 정통한 저자 캐스린 린즈콕은 해박한 지식과 애정 어린 시선으로 독자들을 돕는다. 루이스의 삶과 저작을 자유롭게 아우르며, 그 속에 나타난 핵심 주제인 '하나님', '자연', '인간', '죽음', '천국', '지옥', '기적', '고통' 등의 주제로 루이스의 기독교 세계를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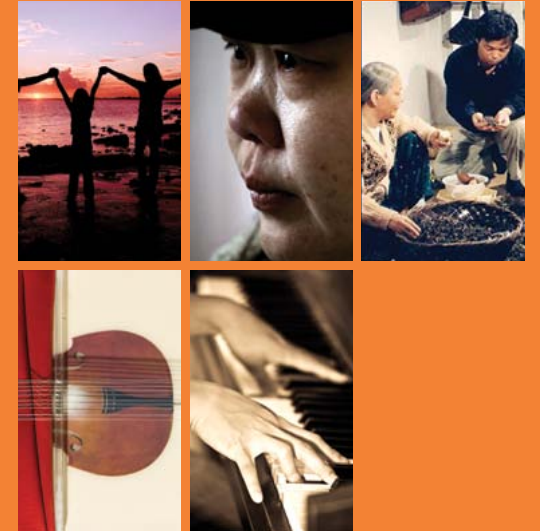


“이 책은 C.S. 루이스를 잘 알지 못하는 독자들에게 그를 소개해 주고, 루이스를 잘 아는 독자들에게는 실제적이고 학문적인 통찰들로 자극을 준다.”
_브루스 L. 에드워즈

캐스린 린즈콕 지음 / 홍종락 옮김 / 믿음의 글들 295 / 456면 / 20,000원

Worldview Column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다



“인류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성에서 기인한다는 것. 진정한 변화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시작한다는 것이었다”

주님께서 가족학자인
나에게 주신 꿈 김성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든지, 그 쓰임새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온전케 하는 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크리스천 가족 내 두 언어 이야기 강진구

“우리는 드라마 속 '사람 사는 이야기'에 울고 웃고 즐거워하며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TV드라마에서
우리네 가족을 본다 박진규

“감사의 외투를 입고 찬송의 금색 띠를 두른 채, 천상의 가락을 멈추지 않는다”

박희숙, 하늘의 곡조 서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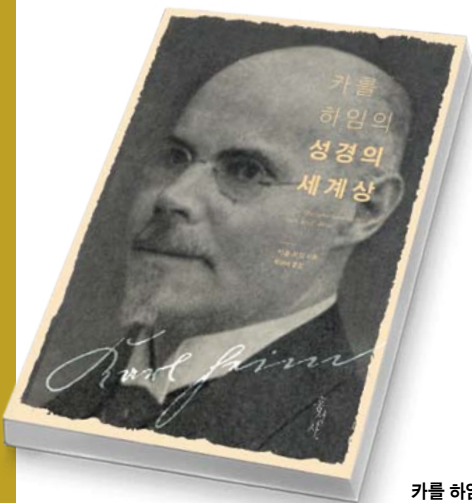
“배음이란 작곡, 연주 등으로 대변되는 음악 관련 모든 작업의 기초 원리라 할 수 있는 자연음향 현상이다”

기독교세계관으로 본 음악 이경원

기독교 신앙이 현대 지성에
폭력을 가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세속화되고 허무에 빠진 현대인에게
확고한 기독교적 세계상을 제시한
독일의 현대 신학자 카를 하임.
현대 지성에 띄우는
그의 냉철한 변증 신학을 읽어 본다!

카를 하임의 성경의 세계상



카를 하임 지음 / 박규태 옮김 / 믿음의 글들 296 / 240면 안팎

주님께서 가족학자인 나에게 주신 꿈

인류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성에서 기인한다는 것. 진정한 변화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시작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박사과정을 하고 있던 2000년도에 주님을 만나 가족학자로서의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다. 1993년 봄 대학원에서 가족학 공부를 시작할 때, 향후 한국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도움을 주는 가족학자가 되고 싶었다. 그 당시는 가족학 이론과 연구 결과들이 가족문제를 해결해 주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통로라고 생각했었다. 미국 가족관계협회(NCFR)에 따르면, 가족학의 목적은 가족 관련 지식을 '발견'하고, '입증'하며, '활용'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 다양한 가족 현상을 이해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과학적인 방법과 지식을 활용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미국에 유학 온 후, 여성과 가족에 큰 관심을 갖고 가족학과 관련 사회과학연구 공부에 전념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남으로써 나의 시각과 소망, 학문연구의 목적과 방향 까지도 크게 바뀌었다. 가장 큰 깨달음은 다음 두 가지였다. 인류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성에서 기인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변화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시작된다는 것이었다. 개인이 주님을 알지 못한 상태라면, 아무리 과학적으로 입증된 가족학 연구결과를 적용하더라도 지속적이고 진정한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전도하는 것이 가족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점차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학자로서의 통찰력과 연구능력을 통해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는 소망도 생겨났다. 지금 품고 있는 꿈은 주님을 모르고 가족학을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크심과 높으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후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족학자의 모습을 그리며 고민하기 시작했다. 스스로에게 던졌던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 1) 어떤 세계관으로 가족을 연구하고 가르칠 것인가?
- 2) 가족학의 어느 영역을 연구할 것인가?
- 3)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족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일까?
- 4) 가족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가족학 연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5) 내가 가진 가족학 지식과 통찰력을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나눠줄 수 있을까?

그런데 주님은 나에게 먼저 기도하게 하심으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서서히 보여주셨다. 특히 미국 내 한인가정 가족들의 아픔을 느끼게 해 주셨다. 이민 1세대들이 겪는 소수민족으로서의 서러움과 좌절, 인종차별로 인한 어려움, 한인 자녀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겪는 소외감과 외로움, 이민 1세 부모와 미국에서 자란 2세 자녀들 간 문화 차이와 세대 갈등, 부부간의 갈등, 폭력 등. 한국 가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는 점점 더 자기중심적

이고 해체되어가는 가정의 모습이 마음에 걸렸다. 이런 문제와 가족 개개인을 품고 기도하게 하셨던 것이다.

현대 한국사회에서는 가정이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가족해체는 개인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예방과 치료가 절실하다. 나는 이 지면을 통해, 건강한 가족을 일궈 나가는 데 도움 되는 방법 및 대안을 제시하고 싶다. 무엇보다 기독교적 관점으로 가족현상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 반기독교적인 것들을 구별하고 비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동거는 명백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다수 젊은이들에게 용납되고 있다. 이 죄가 개인과 가족에게 가져다주는 결과는 너무나 파괴적인데도 말이다. 미국은 우리보다 동거가 훨씬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데, 그 곳에서 이뤄진 많은 연구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거했던 커플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결혼 후 이혼 가능성이 훨씬 높았고, 혼전 동거 파트너 수가 많을수록 그 가능성은 더 커졌다. 또한 동거하는 여자가 남자에게 폭력 당할 가능성도 현저히 높았다. 미국의 연구결과를 한국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부정적인 영향을 짐작할 수는 있다. 이러한 동거남녀관계의 특성과 폐단을 알게 된다면, 사람들이 보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관련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 이와 함께 건강한 남녀관계가 개인의 복지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등도 계속 연구되고 알려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부분적인 문제 파편만 보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이다.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방식과 서로 간의 상호작용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는 과정도 필요하다. 현재 미국 가족학자들은 부부관계와 남성의 가정참여의 연관성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남편의 아동양육 참여율이 높게

NCFR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미국 가족관계협회



나왔다. 비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도 결과는 비슷했다. 가족 간 긍정적인 상호 작용이 남성의 아동양육참여 정도와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가족관계의 질이 향상될수록,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며 살기도 훨씬 쉬워지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교회가 가족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을 회복케 하는 핵심적인 통로로 쓰임 받으면 좋겠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다.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교회는 궁극적인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가족학의 활용기지가 되어 가정이 변화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 전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 학계와 교회의 협력 모델이 나온 바 있다. 남녀관계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덴버 대학의 스킷 스탠리 박사팀에 의해 개발되었다. 철저한 과학적 검증을 거쳐, 현재는 다양한 곳에서 실행되고 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기독교인만을 위해 만들어진 건 아니었는데, 교회라는 허브(hub)를 통해 그 효과는 배가되었던 것 같다. 다시 말하지만, 교회가 가정의 회복을 위해 보다 관심 갖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족학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 나아가 그들을 교회에서 적극 지원해 주는 것 등이 같은 목표를 이루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 한국 가족은 지금 큰 변화를 겪는 중이다. 가정의 형태는 다양해져 가고, 해체 위기의 불안정한 가정도 급증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남성과 여성에 관한 규범이나 역할도 변화하고, 개인주의가 만연하다. 가족을 하나로 잇는 제도나 이념은 너무 약해져서 찾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나는 가족학의 전문가로서 정말 귀히 쓰임받기를 소망한다.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해서 가족의 결속과 긍정적인 변화를 돕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 참 행복을 누리게 하고 싶다. ☺



김성은 현재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브렌디와인 캠퍼스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Brandywine)의 인간발달 및 가족학(Human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가정학 학사와 석사를 받은 후 도미하여 델라웨어 대학교에서 다문화 가족과 모성을 주제로 가족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 연구분야는 다문화 가족, 부부관계, 남성과 아버지, 질적연구방법론이다.



교회와 세상 간의 경계에 서다

주인공 현순의 어머니는 다른 자식들 놔두고, 오직 현순에게만 값비싼 '밍크코트'를 물려줬다. 고령의 어머니가 입던 옷이라 중년에게 그리 잘 어울리진 않는다. 하지만 투박하더라도 어머니의 사랑과 이에 대한 의식이 상징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거기다 한겨울 우유배달을 할 때 그만큼 따뜻한 건 없다.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딸아이 결혼에 돈이 필요했던 현순은 끝내 밍크코트를 팔아 요긴하게 사용한다. '밍크코트'는 자식을 돌보는데 헌신적인 어머니의 대물림된 분신과도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영어제목은 난데없이 기독교 냄새가 물씬 풍기는 <Jesus Hospital>이다. 영화 속에서 두 가지 가치가 함께 병행되고 있는 까닭이다. 한편에서는 밍크코트로 대변되는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하며 가족 갈등의 화해를 다루고 있는가 하면, 다른 편에서는 가족들의 행동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기독교 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두 가치가 주로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에서 전개되는 까닭에 감독은 'Jesus Hospital'이란 이름을 지었다고 볼 수 있다.

달리 말하면, 가족이야기라는 일반적인 내용과 기독교신앙이라는 특별한 상황이 서로 맞물리고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기독교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고, 영화 속에는 신앙적 이해가 깊이 들어 있는 장면들이 적지 않다. 표면상으로는 가족과 기독교신앙 두 요소가 함께 드러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의미나 가치를 생산해내는 측면에서는 융합보다는 물과 기름처럼 서로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다. 기독교세계관의 바탕에서 영화 속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것 같지는 않다. 단지 관찰자 입장으로 기독교가정 내 갈등을 바라보는 듯한 연출 기법을 보인다. 따라서 <밍크코트>를 기독교영화라고 확신하기도, 아니라고 단언하기도 쉽지 않다. 기독교가정의 흥미로운 사건을 전개시키는 과정에서 신앙에 가까운 쪽으로 영화를 끌어가는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 간의 경계에 위치해있는 영화라고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적당할 듯싶다.



크리스천 가족 내 두 언어 이야기

신아가, 이상철 감독의 영화 <밍크코트>

화려하지만 무거운, 따뜻하지만 잔인한...
당신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늘의 언어와 지상의 언어

〈밍크코트〉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고 민스런 질문을 던진다. 의식불명 상태에서 몇 달째 연 명치료에 의존한 채 병실에 누워있는 어머니, 이를 두 고 벌어지는 자식들 간의 다툼과 용서 그리고 화해를 보여주고 있다. 회복 불가능한 환자를 두고 벌어지는 연명치료 논쟁이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일이다. 하 지만 〈밍크코트〉는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상 황을 전개시킨다. '하늘의 언어와 지상의 언어가 대립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가'에 대한 고민이 서려있는 것이다. 영화에서 하늘의 언어를 구사하는 이는 주인공인 현순(황정민)이다. 가 정 형편 때문에 우유배달을 하며 억척스럽게 살고 있지 만, 다른 형제들과 달리 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녀는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는데, 기도 중 하나님으 로부터 어머니가 깨어나신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주장 한다. 하지만 형제들은 생활이 어렵다며 어머니의 병 원비 한 푼 내지 않는 현순이 미울 뿐이다. 회복이 불 가능하므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 사의 소견과 병원비가 부담스러웠던 가족들의 필요는 '지상의 언어'로 나타난다. 이 부분은 영화평론가 이영 진 씨의 칼럼에서도 적절하게 표현되고 있다. "〈밍크코 트〉는 하늘이 내린 십계명과 지상에 뿌리박힌 십계명 을 대립시킨다" (출처: 씨네21)

성경에는 방언이 은사의 하나로 분명히 나와 있고(고 전 14장), 방언을 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런데 하나 님이 말씀하셨다면 생명 연명의 중단을 막는 가족이 나오는 상황은 참으로 난감하다.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존엄사를 기독교 안에서 무조건 비윤리적인 행위로만 볼 수도 없는 노릇인데 말이다. 고신대학원 신원하 교 수는 그의 책 『교회가 꼭 대답해야 할 윤리 문제들』에 서 다음처럼 말했다. "죽음을 재촉하는 능동적 안락사 도 문제가 있지만, 회복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닥칠 죽 음을 지연시키는 인위적 행위에 연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사나 죽으나 예수를 위한 것이다(롬14:8). 또한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 한 삶의 시작으로 보는 만큼, 환자와 가족들을 세상 곁 통 속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가치관이 다른 가족 내 두 세력의 갈등은 반전을 거 듭하며 전혀 의외의 결과를 낳는다. 현순을 제외한 나 머지 가족들은 어머니의 연명치료 중단에 힘을 모은 다. 하지만 현순의 방언을 통한 신비한 예지력에 무릎 을 꿇고 만다. 그것은 남동생이 교회 헌금을 유용한 사 실에 대한 언급이었고, 상황은 급변하여 현순의 입장 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는 듯 보였다. 신비주의 형태 를 띤 종교체험에 거부감 있는 크리스천이라면 자칫 위 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늘의 언어』라는 용어는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알려진 김우현 감독의 책 『하늘의 언어』(규장)에서 차용했다. 김우현 감독은 이 책을 통해 방언의 신비와 유익을 재조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영화는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하늘의 언어와 지상의 언어 간에 화목을 도모한다.

첫째로 그동안 가족을 사랑하지 못한 주인공이 '하늘의 언어'를 통해 반성하게 된다는 점이다. 가족에 대한 방언을 전달하며 신앙의 권위를 내세우지만, 그것 이 가족들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공격적 행 태였음을 깨닫게 된다. 현순이 자신의 방언을 해석해 주는 통변자의 입을 통해서 들은 말씀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요일2:9-11)

방언의 신비성이 이해할 수 없는 권위를 내세우며 가족공동체를 파괴하지는 않는다. 도리어 '가족의 사랑과 화합'이라는 현실 사회의 가치를 세워주고 있다. 이렇 으므로 영화가 자칫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져있다는 비 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는 대목이다.

둘째는 '지상의 언어'인 가족 간의 이해와 소통을 통 해 주인공이 사랑의 신비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현순 은 출산을 앞둔 자신의 딸 수진(한송희)이 급히 수혈을 필요로 하는 위기 상황에 직면한다. 수진과 같은 혈 액형을 가진 사람은 연명장치에 의지한 채 누워있는 어 머니뿐. 어머니 피를 수혈하면 딸은 살지만, 허약한 상 태의 노모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수혈 여부는 오직 가족공동체의 일치된 의견에 달려있다. 살려달라고 애 원하는 사위... 현순은 이전과 정반대로 가족의 동의 를 구하는 처지로 역전되고 만다. 그동안 어머니 생명 엔 관심도 없으며 가족에게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들의 사랑과 도움이 절실해진 것이다.

손녀는 할머니의 피를 수혈 받아 아기를 무사히 출산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설정은 결국 대를 이어가며 생명을 키우는 사랑공동체로서의 가족 의미를 되새겨준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언어'와 '지상의 언어'를 모두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방언을 비롯한 모든 은사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여야 한다(고전 14:12). 마찬가지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든지, 그 쓰임새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온전케 하는 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6



강진구 고신대 컴퓨터영상선교학과 교수이며 영화평론가이다. SFC문화연구소장,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중강연과 각종 미디어를 통하여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문화사역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다.



TV 드라마에서 우리네 가족을 본다

〈전원일기〉, 〈아들과 딸〉, 〈엄마가 뽀뽀했다〉
 〈하이킥 3〉에 없는 건?
 〈드림하이2〉 vs 〈빛과 그림자〉

“TV 드라마를 둘러싼 가족 이야기” 앞으로 이 지면을 통해 몇 차례에 걸쳐서 풀어보게 될 내용입니다. 텔레비전은 가장 많이 이용되는 미디어이고,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지요. 그 중 언제나 최고의 사랑을 받는 장르입니다. 우리는 드라마 속 “사람 사는 이야기”에 울고 웃고 즐거워 하며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면에서는 가족이 우리 삶에 의미하는 바를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지요.

의 이야기인데, 그 속에서 자기 부모와 형제자매, 자녀의 모습을 발견케 되지요. 가족을 떠올리며 드라마 인물과 비교해 보기도 하고, 때론 후회하기도, 위로받기도 합니다. 혹은 더 나아지리라는 희망과 꿈을 꾸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TV 드라마는 우리네 가족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가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전원일기〉, 〈아들과 딸〉, 〈엄마가 뽀뽀했다〉

먼저, 드라마는 일부 단막극을 제외하면, 결국 모두 가족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긴 호흡으로 삶을 풀어내야 하는 흐름에서 가족 사이의 사랑이나 미움이 빠질 수 있을까요? 절대 빼놓을 수 없겠지요.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전문 드라마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부모, 부부, 이들과 딸, 형제자매, 고부 간, 사돈 간 갈등이나 화해는 언제나 드라마의 단골 소재입니다.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 대다수가 그런 가족들의 이야기로 꾸러졌었습니다. 〈첫사랑〉, 〈사랑이 뭐길래〉, 〈아들과 딸〉, 〈목욕탕집 남자들〉 등 말이지요.

이런 구성에 쉽게 빠져들고 감동하는 건, 아마 그 속에서 내 가족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엄마가 뽀뽀했다〉의 엄마는 늙어 가시거나 혹은 이미 세상을 떠나신 나의 엄마와 닮아있고, 〈오작교 형제들〉의 형제애에서 나의 형제의 사랑방식을 떠올립니다. 숨 가쁜 도시인들에게도 〈전원일기〉 김 회장댁 가족이 남 얘기 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나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이

〈하이킥 3〉에 없는 건?

그런데 같은 소재지만 예전과 지금 드라마가 보여주는 가정의 형태는 똑같지 않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흔히 ‘홈드라마’의 경우, 3,4대가 모여 사는 대가족 모습이 예전에는 흔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다양한 인간관계를 보여주어 흥행한 시트콤 〈하이킥〉 시리즈에서도, 가장 최근작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에선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혼이나 다문화가정, 혈연관계가 아닌 가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아내의 유혹〉이나 〈조강지처클럽〉처럼 ‘막장’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볼륨 이야기는 더 이상 새로워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군요. 〈인생은 아름다워〉처럼 가족 내 동성애자 이야기가 가족을 둘러싼 관습적 규범과 윤리를 낯설게 만들기도 합니다.

대부분 TV 프로그램은 작품성이나 완성도 보다는 대중의 인기로 평가되기에 더 자극적이고 과장된 설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드라마 속 내용을 단지 허구에 불과하다고 무시해 버릴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가족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사회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드라마가 우리에게 생각하고 고민할 거리를 던져주는 건 아닐까요?





〈드림하이2〉 vs 〈빛과 그림자〉

TV 드라마를 시청하는 우리의 모습에서도 달라진 변화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누구 손에 리모컨이 들려있느냐가 그 가정 내 위계를 말해주기도 하거든요. 오랫동안 아버지 손에서 떠날 줄 몰랐던 리모컨이 점점 자녀들 차지로 되고 있다 합니다. 그만큼 하나 둘 뿐인 자녀들이 집안에서 갖는 힘이 커진 탓이겠지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TV를 볼라치면 채널 선택권을 놓고 갈등이 생기거나 소위 ‘리모컨 전쟁’이라 불릴 만큼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요즘엔 DMB나 스마트폰 등 TV를 대체할 만한 것들이 많아 전보다는 덜하겠지만, 여전히 눈치싸움은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텔레비전이 소비되는 주공간이 집이라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시간대 하는 두 드라마를 두고 부모-자녀 간 줄다리기에 본 적 없나요? 요즘 인기 아이돌들이 대거 출연하는 〈드림하이2〉와,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의 추억을 곱씹을 수 있는 〈빛과 그림자〉가 한 예가 될 수 있겠네요. 자녀들의 ‘본방사수’ 의지와 추억을 놓치지 않으려는 부모 사이에서 때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하겠죠.



최근에는 여성 뿐 아니라, 50대를 넘긴 남성중에도 TV 드라마에 빠지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 아시나요? 어찌면 어떻게든 가족과의 끈을 잃지 않으려는 이 시대 아버지들의 몸짓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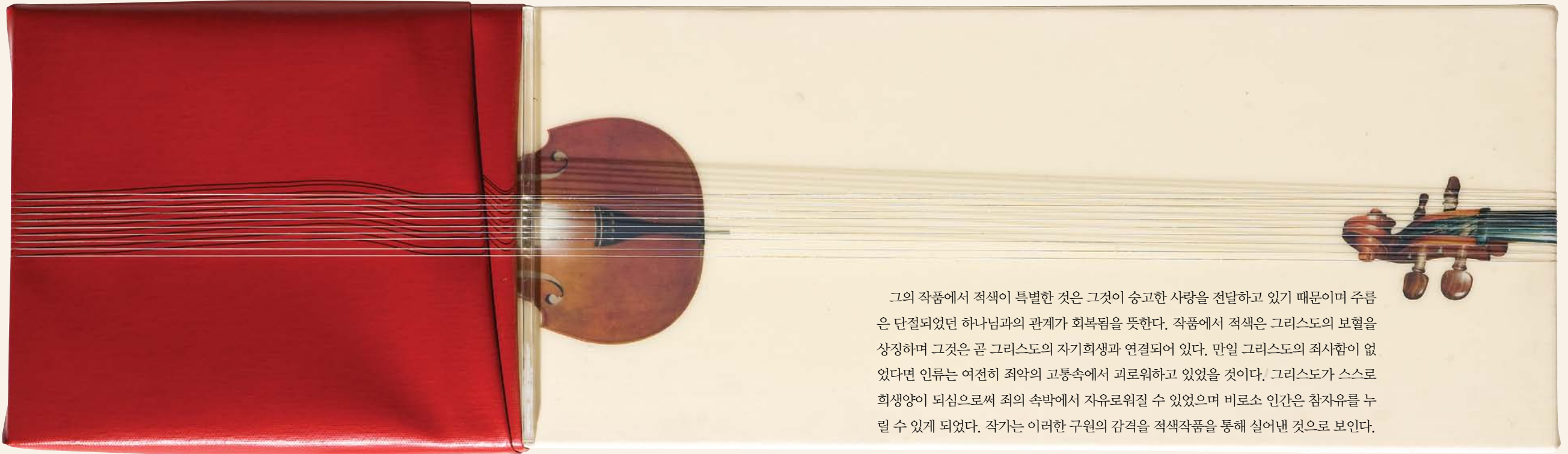
다양한 각자만의 미디어를 갖게 되어 이런 갈등 자체가 차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마음 편히 보는 건 좋지만,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닌 듯합니다. 드라마를 함께 보면서 티격태격, 왈가왈부하는 맛이 꽤 쓸쓸하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 대화는 점점 줄어드는 요즘, 드라마는 공통 화제를 제공해주며 소통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여성 뿐 아니라, 50대를 넘긴 남성중에도 TV 드라마에 빠지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찌면 어떻게든 가족과의 끈을 잃지 않으려는 이 시대 아버지들의 몸짓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렇게 우리는 TV 속에서, 또한 그걸 보는 사람들 속에서 이런저런 가족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소단위의 공동체인데, 점점 더 파괴되어간다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이러한 때에 가정의 영적 의미를 되살리고, 시대 변화에 따라 성경적인 가족의 형상을 새로이 정립해 가는 노력은 더욱 필요하겠지요. 그 과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이 소망에 따라, 앞으로도 TV 드라마를 둘러싼 가족 이야기 나눔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



박진규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콜로라도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공분야는 "미디어와 종교"로서, 종교와 미디어라는 두 개의 개별 영역이 서로 교차하는 다양한 지점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의 작품에서 적색이 특별한 것은 그것이 숭고한 사랑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며 주름은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뜻한다. 작품에서 적색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며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자기희생과 연결되어 있다. 만일 그리스도의 죄사함이 없었다면 인류는 여전히 죄악의 고통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스스로 희생양이 되심으로써 죄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으며 비로소 인간은 참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작가는 이러한 구원의 감격을 적색작품을 통해 실어낸 것으로 보인다.

박희숙, 하늘의 곡조

박희숙의 그림에는 십자가나 면류관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작품은 어느 기독교 작품 못지 않게 깊은 뜻이 아로새겨져 있다. 특히 색의 상징성을 통해 의미내용을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우리의 눈앞에는 흰색과 검정, 그리고 적색의 캔버스가 텅그마니 놓여 있다. 커다란 천에 감겨 있지만 각각의 화면은 저마다의 색깔을 드러내고 있다. 그속에 실린 의미를 작가의 말을 통해 알아보자.

“세상의 모든 것은 원래는 흰색의 깨끗함처럼, 성서의 에덴동산과 같이 아름다움과 평안의 상태였으나 좀 더 많은 것에 대한 우리의 검은 욕심은 결국 인간에게 자연과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혼탁하게 하여 소외, 아픔, 절망, 고통, 자살 같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이 땅에서 매일 경험하고 있다. 이런 암흑의 다리를 건너 다시 흰색으로 환원(A Tempo)할 수 있는 것은 붉은 피의 고통과 희생과 사랑의 포용 없이는 이를 수 없다는 발로에서 기인한 작품이 안아 주심(embrace)이다”(작가노트중에서)

이와 같이 각 화면은 서로 다른 상황을 표시하고 있다. 흰색은 아름다움, 검정은 죄, 적색은 죄사함과 구원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사실 이것은 그가 인간의 근본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짧은 문장이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인간의 타락, 탁월하신 구속행위와 거기서 흘러나오는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다. 그중에서도 작가는 맨 마지막 단계, 즉 그리스도의 속량과 구원의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안아주심》연작에선 천으로 캔버스를 두른 작품이 자주 눈에 띈다. 작가는 디자이너로서의 경력을 살려 지금도 직물을 즐겨 다룬다. 이 천 작업은 단순한 형태를 취하지만 어떤 비밀스러움을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성경에는 대제사장이 예배를 드릴 때 금색, 청색, 자색, 홍색실로 수놓아 만든 예복을 입고 나왔다고 한다.(출 28:5) 화려한 색상의 직물작품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거룩한 옷들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작품이 신적 엄위(嚴威)를 나타낸 작품이라기보다는 앞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죄의 용서와 자비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값비싼 무언가를 포장할 때 우리는 천을 사용하며, 이런 측면에서 작가는 그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담아내고자 했다. 같은 천이라도 해도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작가는 그 천으로 사랑의 표상, 즉 허물많은 인간을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냈다.

《안아주심》연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무지개 작품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함과 소망을 암시한다. 이 작품은 노아가 비가 그치고 물에서 물이 빠지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 뜬 무지개를 통하여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언약을 표상한 것이다. 비록 작품에서 무지개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대신에 7개의 패널에는 7가지 천으로 덧씌워진 여러 색깔을 볼 수 있다. 둥그런 형태 대신 일곱 색상만으로 무지개를 나타낸 것이다. 이처럼 작가는 이 세상을 다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의 증거로 보여주신 무지개를 상징적 의미를 되살려 표현했다.

엄위(嚴威) 엄하고 위풍이 있음. 또는 그 위풍



박희숙은 화단에 데뷔할 당시부터 분명한 예술관을 갖고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가득한 세상을 표현하는 작업의 기조를 지금까지 지켜 오고 있다. 하지만 이전 방법과 근작이 똑같은 것은 아니다. 지금은 천 작업을 하고 있지만 10년전만 해도 작가는 구체적인 이미지를 선호하였다. 과거 그의 작품에는 여러 악기, 즉 트럼펫, 오보에, 트롬본, 플룻, 색스폰과 같은 관악기에서 류트와 같은 현악기, 그리고 고대근동 지역의 나팔이 등장했다. 알다시피 나팔이란 잔치를 벌일 때 흥을 돋우거나 귀빈을 맞이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왔다. 기타의 형님뻘이 되는 류트 역시 고대서부터 춤을 추거나 사랑의 멜로디를 담는 용도로 사용되어왔다.

여러 악기중에서 특별히 그가 애용하는 것은 현악기이다. 팽팽한 현이 화면을 관통하기도 하고 튜닝하는 머리 부분만 살짝 드러나기도 한다. 전체 악기의 모습 대신 스크롤과 줄감개 등 일부분을 노출하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의도가 축소되는 건 아니다.

자세한 서술보다 '함축'이 더 작품이해에 도움을 줄 때가 있다. 공포영화를 볼때 음산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만으로도 관객은 공포 분위기에 사로잡힌다. 그림에서도 간결한 이미지만으로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풍부한 연상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즉 침묵만큼 강력한 표현이 없다. 따라서 작가는 최소한의 실마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객에게 작품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키게 되는 것이다. 악기가 '무한'을 상징하는 하늘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무언가 의미심장한 내용이 깃들어 있음을 암시해준다.

박희숙의 악기는 악기 자체가 그림의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연상시키며, 그 노래는 의

미론적으로 하늘을 향한 갈망과 잇대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이 분석이 맞다면 그것은 하늘을 향한 노래이거나 지상에서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아마 하늘나라에 가서야 들을 수 있을직한 아름다운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그의 그림을 보고 있다면, 마음을 적시는 아름다운 선율이 우리의 내면에 살며시 내려앉는 것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 선율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될 천국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노래이다. 우리는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소리가 마음에 소용돌이를 일으켜 잔잔한 파문을 낳는다. 마치 천사들이 찾아오고 '천국에서 부는 바람'과 '낙원의 꽃소식'을 전해주는 것 같다. 그렇게 두근거림은 시작되고 순식간에 감동의 물결이 퍼져간다.

그의 작품 의도는 <어 템포>(A Tempo)란 타이틀에서도 쉬이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원래 박자대로'란 뜻을 지닌 음악용어라고 한다. 이처럼 그가 소리의 시각화를 위해 부단히 경주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그것은 작가의 말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들려지는 소리의 아름다움은 치료의 수단이며 노래가 되며 언젠가 있을 결말에 대한 기쁨의 기대가 되어 바라는 삶을 이끌어낸다. 즉 맑고 투명하게 평안에 이르며 그 평안을 전하고 고대하면서 사는 삶은 기쁘지 아니한가!" 즉 그가 전하려는 소리는 귀로 들리지 않는 소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들리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부재하는 것이 아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에 눈이 팔린 나머지 위로부터 내려오는 소리를 듣는 법을 잃어버렸지만 작가는 무엇보다 영적인 감각을 가다듬어 내면의 청력을 회복하는 것이 천국의 소리를 듣는 데에 있어 관건임을 말해준다. 내면의 비밀스러운 불꽃이 그의 모든 작품을 형성하는 원천이 되고 있다.

박희숙의 악기는 그 자체가 그림의 목적이 아니다. 거기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연상시키며, 그 노래는 의미론적으로 하늘을 향한 동경과 잇대어져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의 작품추이를 살펴보면, 악기의 이미지에서 캔버스에 천을 두른 근작까지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작품기조에는 큰 변함이 없다. 상징성이 거의 모든 작품 속에 관류하고 있는데 감싼 천은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용서를, 일곱 색깔은 언약의 무지개를, 악기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각각 의미한다. 이렇듯 작가는 종교적 표징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형언어를 통해 주제에 접근해가고 있다.

아무리 내용이 훌륭한 작품이라 해도 그것이 충분한 언어조율을 거치지 않는다면 예술작품으로서 빛이 바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기독교자들은 종종 이런 기본조건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기독교미술이라고 해서 예술의 범주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점, 그것 역시 일반에게 감상되고 소통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술품은 내용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거기에 형식적 부분이 갖추어질 때 비로소 완벽한 균형을 갖추게 된다. 물론 여기서 형식적 부분이란 조형을 얼마나 잘 구사할 줄 아는가 하는 능력을 일컫는다. 조형의 구사는 기본적으로 요리사가 자유자재로 재료를 다룰 줄 아는 솜씨와 견줄 수 있는데 식재료에 서툰 요리사를 생각할 수 없듯이 조형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예술가를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역대 화가들은 이점에 있어 모범을 보여준 바 있다. 가령 렘브란트의 기아로스쿠로, 반 고흐의 생동감있는 붓놀림, 루오의 목직한 필선 등은 그들이 얼마나 자기만의 조형언어를 위해 고민했는지 알려준다. 재료의 구사는 물론이고, 자기 언어를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감동적인 예술의 첩경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박희숙은 예술작품의 요건에서 필수적인 형식적인 문제를 상징성이란 장치를 통해 차근차근 풀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조형을 중시하는 작가들이 공허한 형식주의의 수렁에 빠져버리는 경우를 종종 목격할 수 있지만 작가는 이를 신앙의 풍부한 의미 지층으로 극복해가고 있다. 작가는 간결한 형태와 절제된 언어로 하늘을 향한 노래를 잔잔하게 울려 퍼지게 한다. 그러나 그 소리가 나의 귓전에 와 닿을 때는 왜 이처럼 크게 들리는지 모르겠다. ☺



서성록 안동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회화과 동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동서문화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주요저서로는 『한국 현대회화의 발자취』, 『렘브란트의 거룩한 상상력』, 『미술의 터치다운』, 『박수근』, 『렘브란트』, 『미술관에서 만난 하나님』 등이 있으며, 공저로는 『우리 미술 100년』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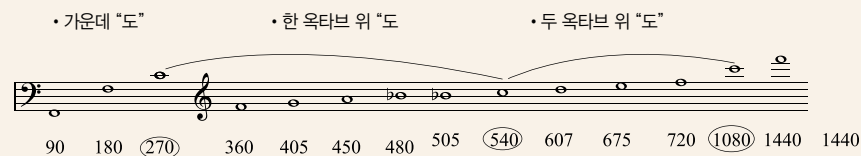
기독교세계관으로 본 음악

지난 글에서, 서양 초기 음악 역사와 배음이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배음이란 작곡, 연주 등으로 대변되는 음악 관련 모든 작업의 기초 원리라 할 수 있는 자연음향 현상이다. 이번에는 자연음향 배음과 연주 효과의 관계를 알아보자.

소리와 음향

듣고 음으로 따라 할 수 있는 소리(=음향)도 있고 음으로 내기 힘든 소리(=소음)도 있다. 먼저, 고요한 동굴의 웅덩이나 호수에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를 상상해 보자. 떨어진 물이 고른 물 파동을 만들며 -벽이나 돌 같은 장애물이 없는 한- 동그랗게 전체로 퍼져 나갈 것이다. 마찬가지로, 두 물체가 부딪혀 생성된 소리가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는데 방해 물체(벽)가 없다면 고른 공기의 파동(=음파 sound wave)을 가진다. 고른 규칙적인 파동의 결과 귀로 구별할 수 있는 음이 만들어지고 이를 음향이라 한다. 반면, 소음은 불규칙적으로 파동으로 만들어진다.

다음의 악보는 음들 간 진동수(frequency)를 나타낸 것이다.



한 옥타브(=8도 음정 간격) 위의 음은 정확하게 2배의 진동수를 가진다. 위의 그림을 보면 가운데 도(middle C)가 270번의 울림을 가지고, 한 옥타브 위의 도(C)는 정확히 2배인 540번, 두 옥타브 위의 도(C)는 다시 그 두 배인 1080번 진동한다. 주파수로는 두 배 속도인 옥타브 간격의 음들이 같은 음(Octave equivalence)이란 것은 음악사에 매우 중심을 이루는 기준점이다. 만약 옥타브 동치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비교 가능한 기준점이 없으므로 화음을 만들거나 음악을 수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모든 음과 음 사이에는 수학적 질서(orderliness)가 있다. 음향의 기초인 물리적 현상, 수학적 질서는 음악의 아름다움 근거를 제공하고 하나님의 속성 질서는 음악에 아름다움의 윤리적 기초가 있음을 시사한다. 존 케이지 등의 우연음악, 전위음악 같은 현대의 아방가르드 음악은 대개 음향보다는 소음을, 질서보다는 무질서를, 조화보다는 분열과 파괴를 다루며 전통과 권위를 부정하고 기존의 음악 재료들을 거부한다. 그리고 아름다움과 선함이 부재한 음악을 새로움이란 이유로 정당화하고 절대적 미를 상실한 이 시대의 음악을 또 다른 미(美)로, 다양함이라는 다원성으로 정의한다.

다음은 장음계(major scale)의 각 음 사이의 수학적 비율을 나타내는 표인데 이 이론을 세우고 발견한 사람은 그리스의 수학자 피타고라스이다. 도(C)의 주파수를 n으로 했을 때 한 옥타브 위는 2n, 5도 위의 음은 3/2n 등 소리를 만드는 물체의 무게나 길이의 비율을 나타낸다.

	c	d	e	f	g	a	b	c'
Frequency(n=1)	1	9/8	5/4	4/3	3/2	5/3	1과5/8	2
Frequency(n=24)	24	27	30	32	36	40	45	48
Vibrating length	1	8/9	4/5	3/4	2/3	3/5	8/15	1/2

그러므로 현대 음악에서 인간과 자연 음향을 거스르는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소리를 찾아 미적 기준을 파괴하여 인간성과 그 삶을 오도하고 회피하게 하고 비도덕적(반지성적, 비이성적)으로 이끄는 음악인과 그 음악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위한 자유를 찾아 거역하는 마음으로 심미성에 도전하는 것은 예술(음악도 그 중 하나)을 틀로 삼아 자기 중심성을 들어내는 것이다.

소리의 속도와 울

메아리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소리가 수 초 후에 내 귀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1초에 약 330미터를 이동하는 소리의 속도와 직선으로 이동하는 소리의 성질과 관련된다. 만약 160미터 크기의 연주 홀이 있다면 무대의 소리가 대략 0.5초 후에 끝에서 들릴 것이다. 좋은 연주 홀이란 이런 소리의 성질을 반드시 고려해서 반향을 잘 조절하는 음향 판을 사용한다. 더해서, 좋은 연주 홀에 가보면 고음과 저음이 잘 울리면서 명확하게 들리는데, 이는 배음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이다. 마치 질 좋은 나무가 명기(名器)에 필수적인 것처럼 좋은 홀은 고음과 저음에 대한 적당한 반향을 가지는 재료가 필수이다.



이처럼 완벽에 가까운 음향을 가진 홀 일수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음악 환경 기초인 소리의 속도와 배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이다.

배음과 음의 중복

지난 글에서 16번째까지의 자연 배음의 간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아래가 넓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며 16개의 배음 중에 가장 많이 중복되는 음은 근음(root, 혹은 1음)이다. 이 중복되는 음이 3음(도미솔=C major인 경우라면 “미”)인지 혹은 근음(도미솔=C major인 경우라면 “도”)인지에 따라 곡의 무게와 음색이 달라진다. (물론 곡의 분위기를 만드는 음악 요소는 배음이 가지는 중복음의 이유 외에도 조key, 빠르기tempo, 화음harmony, 음색tone color 등 여러 요소가 있으나 이 글에서는 배음만을 다룬다.)

음의 중복은 오케스트라와 같은 악기 편성 (orchestration)을 위한 편곡에도 중요 원리가 된다. 이를 어긴 음악은 아름다운 음악적 특징들을 잃어버린다. 모든 천재 음악가들은 이를 알았고 이것을 친구로 삼아 자신의 음악을 이 법에 종속시켜 곡을 만들었다. 아마추어들은 이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다음 글에 조금 더 다룰 예정이다.



위의 곡은 4성부 바흐 코랄Choral no.111인데 배음의 간격과 근음 중복의 원칙을 잘 따른다. 즉, 간격을 보면 아래 두 성부인 베이스와 테너간격이 넓고 위의 세 상성부는 배음의 음역처럼 모여(close position) 있다(동그라미로 표시). 음 중복을 보면, 근음-3음-5음 중 대개 근음(예, 라도미=A min or 화음에서는 “라”, 미솔#시=E major 화음에서는 “미”)을 중복하는 것을 볼 수 있다(선으로 표시). 3마디 12 beat 안에 근음 중복(선으로 표시)이 8번 나타나며 결과적으로 안정적이면서 일반적인 소리를 연는다. 이런 배음의 원리는 18~9세기 화성과 대위법을 사용하는 모든 곡에 잘 나타나 있다.

곡의 중복 음은 오케스트라와 같은 악기 편성 (orchestration)을 위한 조합에서도 화성이나 대위법과 마찬가지로 음악과 편곡을 만드는 원리가 된다. 이를 어긴 음악은 아름다운 음악적 특징들을 잃어버린다. 모든 천재 음악가들은 이를 알았고 이것을 친구로 삼아 자신의 음악을 이 법에 종속시켜 곡을 만들었다. 아마추어들은 이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

지난 달 본문에서 편집과정상의 실수로 각주의 일부가 빠졌습니다.

이점 사과드리며 빠진 각주의 내용을 다시 소개합니다.

1. 그레고리오 성가(Gregorian chant): 대략 5,6세기경부터 11세기에 걸쳐 만들어지고 쓰여진 로마가톨릭교회의 단성부(monophony) 전례음악으로 교황 그레고리 1세(590-604)에 의해 수집되어 그 이름으로 명명됨
2. 다성부음악(Polyphonic music): 12세기 노트르담 성당을 중심으로 시작된 2성부 이상 여러 성부의 곡
3. 하모닉스(Harmonics): 현악기는 손가락을 눌러 내는 정상적인 소리 외에 현의 특징지점에 가볍게 손가락을 대서 배음에 해당하는 잉여의 소리를 만들 수 있다.
4. overblowing: 관악기 연주자들은 자신만의 호흡 조절과 취구방법(embouchure)을 통해 기음(관 길이에서 낼 수 있는 최저음)에 위의 배음들을 더 찾아 볼 수 있다.
5. 오르가눔(Organum): 9세기 최초의 다성음악(polyphony)에 대해 언급한 이론서 Musica Enchiriadis (Musical handbook)에 실린 병행 오르가눔(parallel organum) 악보
6. 아르스노바(Ars Nova): 완전화음(1,4,5,8)의 빈듯한 음정을 주로 사용했던 이전스타일에서 Ars nova는 좀더 유려한 선율과 3도음정을 자주 사용



이경원 한양대 작곡과를 졸업하고 University of Maryland at College Park 음악 작곡 석사 및 박사(DMA) 학위를 받았다. 한양대 및 대학원, 단국대 등에서 강의를 하였으며, 필라델피아 String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챔버 코치를 거쳐 현재 하늘소리 홀스쿨 오케스트라 음악 감독 및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역서로는 『기독교세계관으로 본 음악(원제: Sound Stewardship)(DCTV)』이 있다.



우리는 존 요더와 어디까지 같이 갈 수 있을까?

존 하워드 요더 (John Howard Yoder, 1927-1997)는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 기독교계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으로 꼽을 수 있다. 그는 재세례파(再洗禮派) 최대 교파인 전통 메노나이트의 주장을 기독교계 주류 목소리로 들리게 한 인물이다.

존 하워드 요더(John Howard Yoder, 1927-1997)는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 기독교계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으로 꼽을 수 있다. 그는 재세례파(再洗禮派) 최대 교파인 전통 메노나이트의 주장을 기독교계 주류 목소리로 들리게 한 인물이다. 그래서 나는 요더와 관련해 '재세례파의 아이러니(Anabaptist irony)'라는 말을 자주하곤 했다. 처음부터 비주류 종교개혁 운동으로 시작해, 항상 근본적으로 주류이기를 거부하던 그들을 주류의 하나로 되게 했으니 말이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그대로 순종하지는 것이니 감사한 일이다. 이 짧은 글에서는 먼저 요더가 어떤 인물인지를 간단히 살펴보고, 그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환영하며 따라가야만 하는 이유를 언급할 것이다. 또한 요더를 성경을 존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로 인정하면서도, 끝까지 그와 함께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점들이 무엇인지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요더, 그는 누구인가?

요더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20세기 가장 명석하고 영향력 있는 기독교 윤리학자 중 한사람', 또는 '가장 강력한 기독교 평화주의의 변증가'이다. 그는 1927년 12월 29일 미국 메노나이트 가정에서 태어났고, 대학도 같은 계열인 고센 대학을 졸업했다. 21세 때인 1949년, 프랑스로 이주해서 메노나이트 중앙 위원회와 협력하여 제2차 세계 대전 중 고아 된 아이들을 보살피는 일을 한다. 수년간에 걸친 그의 사역은 효과적이었다. "요더가 없었더라면 많은 이들이 평화와 정의의 복음을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교회와 기독교 신앙까지 포기했었을 것이다"라고 프랑스 메노나이트들은 말한다(25). 1950년 가을부터 스위스 바젤 대학에서 시간제로 강의를 듣고 세미나(colloquia)에 참여하였다. 당시 바젤 대학에 있던 칼 바르트, 오스카 쿨만, 발터 아이히로트, 보 라이케, 발터 바움 가르트너, 핸드릭 반 오옌, 하인리히 오토, 그리고 칼 야스퍼스 같은 이들의 강의였다. 에른스트 슈태헬린의 지도하에서 '1923년-1938년 사이의 스위스 주류 종교개혁자들과 재세례파의 논쟁'에 대한 박사 학위 논문을 쓰기도 했다. 또 이때 평화에 대한 에큐메니칼(교회연합(일치)운동) 대화에서 여러 차례 강연하고, 당시 평화 문제에 대한 신학적 거장들인 바르트

와 니이버에 대한 소논문을 발표했으며, 유럽 메노나이트들의 신학적 대화에 참여했다. 그 후 1952년 프랑스 메노나이트인 앤 마리 구트와 혼인하고, 1954년 가을 바젤로 이사해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한다.

1957년 요더는 미국으로 돌아갔다. 1959년부터 1965년까지 인디애나주에 있는 메노나이트 선교부에서 해외 선교 담당 행정 부국장으로 사역하며 선교사들을 섬겼다. NAE(복음주의협회), NCC(기독교교회협의회), WCC(세계교회협의회) 등의 단체에서도 광범위한 활동을 했다. 그러다가 1966년에는 남미의 해방신학에 대한 초기 대화에 참여했는데, 계속해서 관심 가지며 도움을 주어 남미 신학회 명예 회원으로 추대되기도 했다. 그 후 요더는 자신의 모교인 고센 대학을 비롯, 메노나이트 연합 성서신학교, 그리고 천주교 대학인 노트르담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했고, 미국 기독교윤리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2. 요더의 성경적 증언에 대한 공감과 철저한 따름에의 요청

요더는 성경에서 발견되는 예수님의 요구에 온 힘을 다해 철저히 따를 것을 요청한다. 이 점이 그에게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물론, 오래 전부터 성경 속 그리스도의 명령이 복종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 있었다. 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말할 때 사람들은 의견을 달리 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일단 요더의 주장 가운데, 성경적 메시지를 정확히 잘 드러내어 우리가 꼭 따라야 하는 것들을 정리해 보았다.

첫째로, "예수와 우리의 우선적 의제는 죽음이나 불안이 아니라, 불의와 불법이다(40)." 라는 언급이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위안이나 수용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질서가 된다. 여기서 '현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다른 질서의 압박에 대한 약속'이라는 말은 매우 중요하다. 예수님께서서는 열두 명을 제자로 부르셨다. 요더는 이 12라는 숫자가 이스라엘을 재구성하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새 시대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음을 극적으로 선포한다고 했다(58). "새 시대는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전체 사역과 함께 결정적인 방식으로 역사 속으로 들어 왔다(79)."며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은 “현재를 두 시대가 겹치는 시기로 보고 있다(78).”고 바르게 지적한다.

또한 제자들에게 ‘성공’이나 ‘효율성’보다는 그분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라(60)는 예수님의 요구는 얼마나 타당한가.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는 사람은 그걸 사 용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통치할 수 있다거나, 세상에 서 번영하고 유명해지리라 기대하지 않는 법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한 길과 대립했던 당시의 다른 노선들을 비교해보자.

1. **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현실주의 노선 - 예수님 시대의 헤롯 당과 사두개인들**
2. **혁명적 폭력을 주장하는 노선 - 열렬당파(the Zealots), 1960년대 젊은이들의 주장들**
3. **광야로 나가 자신들만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외부제로의 이주’ 길- 새해 문서를 탄생시킨 그룹, 아미쉬 공동체나 모든 이민 세대들, 캘리포니아 협곡의 히피들**
4. **문제 한가운데 살면서도 순전하고 분리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내부에로의 이주 길(소위 적합한 종교의 길) - 바리새주의의 길**

예수님이 택하고 제시한 길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다(49). 아브라함은 순례의 길을 떠나 지금까지와 다른 삶으로 향했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사신 분이다. 자기 주변의 인류가 전에는 보지 못했던 완전히 다른 사회를 창조한 셈이었다(50).

성경적 메시지를 정확히 짚어낸 요더의 다른 주장을 살펴보자. 예수님은 사실 산상수훈에서 구약의 의도를 잘 드러내었다고 지적한 부분이다. 특히 “나머지 세 가지 대조는 이전의 율법이 실제로 의도했던 바를 파악할 때 이해하게 된다(65).”는 주장은 매우 인상적이다. 비록 예수가 보복 폐지를 강력하게 한 걸음 더 밀고 나갔을지라도, 그것은 고대 율법 조항과 같은 방향성을 띠고 있다(66)고 본 것도 옳다. 예수님은 구약이 아니라,

당대 전통적 해석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의를 부정하려 했다고 파악한 것 역시 매우 옳다(66).

셋째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본 폭력과 관련한 지적이다. “폭력적 혁명은 너무 많은 걸 변화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45)”. “칼로 만들어낸 질서는 본디 예수께서 공표했던 새로운 백성됨이 아니었다(46)”라고 짚은 건 얼마나 정확한지 모른다. 저항을 거절하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반응(71)이라며, 예수님이 제시한 대안을 말하기도 한다. ‘자신의 목표를 거절당하고, 악에 굴복당한

사람에 대한 창조적 관심(71)’이 바로 그것이다.

넷째로, 요더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가 ‘사회 변혁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53).

3. 요더의 의견에 대해 아쉬운 점

이처럼 요더는 성경 속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따르려 했으나 완전한 건 아니다. 가장 아쉬운 점은 예수님이 세운 그 새로운 공동체와 십자가가 이룬 구속의 관계가 분명히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요더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가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그가 만일 마음속으로 ‘구속’을 분명히 전제하고 있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히 의식하지 않게 하는 사소한 불명료성의 문제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혹 그가 실제로 구속을 진지하게 생각 않는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것은 요더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근원적 혁명」에서나, 그의 가장 중요한 저작으로 인정되는 「예수의 정치학」에서도 구속과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관계가 상당히 모호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복음주의적 기독교인들은 이 점을 가장 심각하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최대한으로 말한다면 요더에게 십자가의 길은 모든 사람이 따라 가야 할 길이지, 그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 길은 아닌 게 된다. 그래서 그가 “재차 말하거나 우리의 본보기는 십자가다(87)”라고 할 때일면 불안한 마음이 든다. 그렇게 되면 십자가의 길은 ‘우리들이’ 애쓰고 노력하며 갈 길이 되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말이다. 또한 예수가 내린 윤리적 결단을 묘사함으로써 제자도의 윤리를 표현할 수 있다(56)고 말하는 부분도 미심쩍다. 다음 인용문은 이런 의혹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다.

옛 언약에서 한쪽 눈에는 오직 한쪽 눈만으로 보복을 제한했던 것이 이제는 공격한 사람을 구제(redemption)하기 위해 필요한 특별한 사랑의 척도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사랑으로, 율법이 일점일획도 없애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는 의미이다(71).

그는 여러 곳에서 이웃 사랑을 ‘하나님 사랑의 본질과 그의 나라에 대한 가장 적절하며 실제로 가능한 증언(73)’이라고 말한다. 원수 사랑하기를 철저히 하여 선으로 악을 이겨야만 완전한 사랑이 성취되고 율법을 이룬다고 한다면, 결국 요더는 또 다른 율법주의적 구원론을 제안하는 것이 된다. 그와 관련 논란의 여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주 최소한으로 말한다 해도 요더는 구속에 대해서 별로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구원 문제를 모호하게 하는 문제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아쉬움은 때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여부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다. 가령 산상수훈에 대해 “하나님 나라가 다가 올 때 자신을 그 나라에 부적합한 자가 아닌, 그곳에 편안함을 느끼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발견되기를 사모하는 것이다(62)”라고 말하는 식이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미래 구조와 일치하지 않는 표현으로 인해 마음이 불편해진다.

교회가 ‘의도적 공동체’이므로, 오직 회개를 통해 왕에게 지원하여 충성을 맹세함으로써만 들어 올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은(50f.) 이해할 수 있다. 출생으로 가입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이 공동체를 ‘제2세대 구성원이 존재하지 않은 사회(51)’라고 하면서, 마치 유아 세례는 비성경적이라고 말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데에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또 다른 깊이 있는 논의를 필요로 하는 심각한 문제다.

마지막으로, 지옥 교리를 ‘최후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자유를 존중한 것’이라고 해석하는(85) 부분이다. 알미니안적인 구원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에,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요더와 같이 갈 수 없을 것이다.

4. 요더의 근원적 문제점들

요더의 근원적 문제는 역시 그의 절대적 평화주의에 대한 것이다. 평화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것에 근거해서 성경 전체를 해석하려고 시도한다.

이는 결국 다른 사람들의 주장에 기생하는 주장이라 할 수도 있다. 요더가 말하는 절대적 평화주의, 메노나이트 주장이 어떻게 미국 내에서 먹힐 수 있었을까? 단 순하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가진 않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세상의 질서가 권력 투쟁으로 유지된다고 볼 때, 주류 세력과는 다른 주장으로 빛을 비추려는 것처럼 말이다. 이것을 우리나라 정황으로 옮겨 생각해 보자. 만일 북한이 무력을 사용할 때, 요더의 절대 평화주의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은 전혀 무력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분명한 전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하지는 않으리라는 점이다. 그러기에 자신들은 절대 평화주의를 천명하며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다. 결국 다른 이들의 불순종에 기생해 가는 주장이라는 것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절대 평화주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의식이 별로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이는 일정 집단의 사람들만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비주류 종교 개혁, 또는 좌파 종교개혁자들(left reformers)의 특징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는 사회 전체에 대한 이상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종교개혁 당시부터 사회 전체를 고려하는 주류 개혁자들과는 다른 양상이다. 요더의 제자도 윤리에 따르면, 그들이 세상에서 소수자가 될 것이라고 전제한다. 또한 모든 사람이 그들처럼 행동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물음에 즉각적으로 대답할 필요도 없다고 말한다(60f.). 그가 이해한 대로라면, 그리스도 초림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그리스도의 도래로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83).

결과적으로 절대 평화주의는 모든 군대의 군목(chaplain)이나 병원에서의 목목이 없어져야 하고, 의회 내에 함께 기도하는 모임도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

는 셈이 된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아니면 더 많은 문제를 양산하는지는 보다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이런 평화주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요더는 개신교의 정통주의적 주장을 잘못된 것으로 이해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을 강조하는 개신교의 주장을 '개신교적 도피 수법'이라고 말한다. 또한 "결코 충족시킬 수 없는 불가능성으로 우리를 몰아넣은 율법의 요구는 나만을 구원코자 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한다(64)"고 말하기도 한다. 개신교 정통주의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렇게 개인주의적으로만 신앙을 생각하긴 어렵다. 때문에 요더의 이런 견해는 자신의 메노나이트적 주장을 세우기 위해 개신교 정통주의에 대한 허수아비를 세워 놓고 공격하는 거라는 인상을 주게 된다. 그의 논의를 따라 가다 보면, 전통적 주류 개신교 입장은 예수님의 의도에 철저하지 않은 것으로 희화되어 제시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합리적으로 정당한 자기 이익을 전제하면서 말이다.

절대 평화주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의식이 별로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이는 일정 집단의 사람들만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비주류 종교개혁, 또는 좌파 종교개혁자들의 특징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다.

예를 들어 주류 개신교 주장은 "자아 훈련은 요구하지만 자기 부인은 요구하지 않는다, 멩에를 메라고 하지만 십자가를 지라고는 말 못한다, 국가든 개인이든 생존의 순간에는 도덕적 엄격성을 제한한다(68)"는 식이다. 그러나 과연 개신교 정통주의에 대해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러한 요더의 입장에 따르면, 개신교의 주장도 콘스탄틴적 이교의 한 부분으로 묘사된다. 순수한 초대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따랐지만, 콘스탄틴의 인가로부터 이교화하여 국가의 마성회를 돕는데 기여했다고 본다. 종교 개혁시대 재세레파가 이에 대해 저항했듯, 현 시대에 필요한 것은 순수한 형태의 교회로 회복해 가는 거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성경 비판에 대한 요더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모호한 표현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본문과 역사적 예수 자신의 말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57)"와 같은 말을 들 수 있다. 요더가 성경에 대한 비판적 견해들을 적극 찬동하면서 논의하고 있진 않다. 하지만 최소한으로 말하면 성경에 비판적인 이들과도 아주 오래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말한다고 할 수 있

다. 최대한으로 말하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에 대해서 철저하기를 바라는 듯이 말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요더는 "마태복음서 전체, 특히 마태복음의 확장된 강화는, 구체적인 교리 문답식 기능을 위해 초

대교회가 유지해 왔고 전수해 온 것이라는 학자들의 합의가 모이고 있다"고 논의한다(74.n.1). 철저한 복음주의적 입장을 지닌 사람들은 때때로 요더가 말하는 방식에 불편한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그는 마리아의 찬가(Magnificat)를 '마카비의 언어'라고 하며 '혁명적이고 전투적 외침'이라고 말한다(35). 또한 히브리인들이라는 말이 "본래 '강을 건넌 사람들'을 뜻하는 호칭이었다"고 아주 당연시 여긴다(50). 이 뿐만이 아니다. 요더는 "예수께서 유대교 바리새파의 한 분파에서 기인하였으며 그 안에서 사역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산상수훈은 그 자체가 랍비적이면서 바리새파 전통 속에 속하는 자료이다"라고 말하기까지 한다(74f.n.4). 그것도 '더 광범한 역사적 분석을 토대로 한 학파의 해석에 의하면'이라며, 마치 그것이 바른 해석인 양 시사점을 주면서 말이다.

때로는 성경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반영하면서 확인할 수 없는 다소 과장된 주장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제자 중에는 다른 무리보다는 열심당 출신들이 더 많았"고"라고 하는데(44, 88), 이를 분명히 확인하기는 어렵다.

요더는 자신이 결과적으로는 다른 말을 하려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듯하다. 하지만 사실 많은 혁명 신학과 같은 방식으로 말하기를 즐겨함을 알 수 있다. 가령 1960년대 복음은 '베트남전의 종식'을 뜻하기도 한다. 이는 "우리 중 일부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건이 아니라, 모두의 공통 삶을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시킨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37). 그는 또한 "하나님이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그 일은 가난한 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고, 거만한 자와 부자에게는 나쁜 소식이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38). 하나님이 가져오는 변혁은 "사회경제적 변혁을 포함한다"는 것을(38) 말하려는 의도겠지만, 그의 표현 방식은 오해를 낳을 수 있다. 말하려는 바가 그저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이고 그저 부자에게 나쁜 소식이라는 말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내용을 오해 사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다. ☞



이승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합동신학대학원, 세인트 앤드류스대학교대학원에서 석, 박사 학위를 받고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을 거쳐 현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과 부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기독교세계관이란 무엇인가」,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강해1, 2」, 「21세기 개혁신학」, 「광장의 신학」, 「우리 사회 속의 기독교」 등이 있다.



아담의 호기심

아담이 신흠여행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과 에덴동산에 산보를 하게 되었다. 너무 행복에 겨워서 하나님께 여쭙어 보았다.

- 아담 “하나님, 하와가 정말 예뻐요. 왜 그렇게 예쁘게 만드셨어요?”
- 하나님 “그래야 네가 네 아내를 좋아할게 아니냐?”
- 아담 “하와의 피부가 참 부드러워요. 왜 그렇게 부드럽게 만드셨어요?”
- 하나님 “그래야 네가 네 아내를 쓰다듬어 줄게 아니냐?”
- 아담 “그런데 하나님, 하와가 조금 멍청해요.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 하나님 “아! 그래야 너 같은 놈을 사랑할게 아니냐!”



교훈 1 질문은 두 개 이상 하지 마라.
교훈 2 아내를 험담하면 본전도 못 찾는다.

WORLDVIEW NEWS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6기 졸업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중기과정 6기 수료식이 2월 11일 오후 1시부터 중앙대학교 법학관에서 있었습니다. 1부 순서에서는 졸업작품 시사회와 강평이 있었으며, 2부는 신국원 아카데미 소장의 인도로 감사예배와 성적우수학생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4개월간 지속된 세계관 교육과 미디어 제작훈련을 통하여 성경적 가치관을 미디어의 영역에서 바르게 펼쳐나가는 사역자들로서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중국쉐퍼드신학교 졸업식 (China Shepherd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중국쉐퍼드신학교는 중국 현지인에 의해 설립, 운영되고 있는 신학교육 기관으로 미국고든콘웰신학교와 홍콩건도신학교 그리고 한국의 신학교들과도 협력하고 있으며,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와도 동역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00여명의 학생들이 신학 학부과정과 목회학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으며 최근 학교설립 3주년을 맞이하여 목회학석사과정(ATA인준학위) 제1기 졸업생 8명을 배출하였는데 대부분의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모두 중국교회의 현직 리더들로 중국교회 개혁의 역군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VIEW) 콜로키움

VIEW 원우회는 2월 7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손봉호 교수를 초청하여 제2회 세계관 콜로키움(Worldview Colloquium)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 및 한국사회에서의 기독교세계관운동과 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 관한 질문에 손봉호 교수의 진솔하고 통찰력 있는 답변을 듣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세계관 콜로키움은 원우회에서 주관하며 VIEW 학생들의 세계관 학습을 위한 월간 모임입니다. 다음 모임은 3월 5일이며 VIEW 1회 졸업생인 박종국 목사를 초청하여 "기독교세계관적 목회: 다운공동체교회 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월드뷰 2월호 독자후기

떨리는 타국 선교사의 비전을 품은 크리스천들부터 가깝게는 내일 당장 일터의 현장을 뛰어야 하는 크리스천들까지... 기독교적 가치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들을 생생히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 서울시 성북구 이관형

이번 월드뷰를 통해 일터와 교회, 삶과 신앙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고민하고 노력하여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 포항에서 고윤민

- * 1월호에 대한 독자후기를 보내주신 김예랑, 김수현, 최형민님께는 월드뷰가 준비한 신앙도서를 선물했습니다.
- * 편집부에서는 독자들의 후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드뷰를 읽고 느낀점이나 바라는 점을 이메일(info@worldview.or.kr)로 보내주세요.
- * 독자후기로 선정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책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 * 독자후기를 보내실 때는 이름과 전화번호, 직업,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Global Mission Hospital of Cherishing Life through Excellence in Integrative Medicine & Holistic Healing

**탁월한 통합의료와 전인치유로
생명사랑을 실현하는 글로벌 선교 병원**

- 암에 대한 '통합치료' 시스템을 구축한 통합의학암센터
- 보건산업진흥원 선정 인공관절수술 부문 우수기술 보유 의료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혈액투석 적절성 평가 '최우수 등급' 병원
- 대한심장학회 심혈관중재시술 인증 의료기관
- 보건복지부 선정 외국인환자유치 종합병원 부문 1위 병원

안양샘병원 031 467 9114 | 샘여성병원 031 467 1000 | 샘한방병원 031 463 4310 | G샘병원 031 457 9114

통합의학암센터 031 467 9188 / 9388 | 관절전문센터 031 467 9167 | 뇌척추센터 031 467 9285 | 치과센터 031 463 4383
 샘건강의학센터 031 463 4331~2 | 샘산업의학센터 031 463 4390~2 | 응급센터 031 467 9119 / 9129 | 산후조리원 031 467 1190
 산전관리실 031 467 1020~1 | 민간구노인보건센터 031 466 6370 | 샘병원교회 031 467 9335 | 장례식장 031 467 9700 / 9770



**제 8기 C-LAMP
크리스천
최고 경영자 과정
모집**

CL VISION STATEMENT
C-LAMP는 기독교 경영인들이 경영 현장에서 청지각적 소명을 재확인하고 동역 네트워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기업 7업 속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감으로써 기업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실천적 행동을 추진합니다.

커리큘럼 Curriculum

+ C-LAMP의 영성훈련 프로그램은 크리스천 리더십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원동력을 회복 시키고자 합니다.
 일터 사역, 예배와 중보기도, 성경적 직업관, 성경의 권위와 말씀 묵상, 비즈니스 선교, 청지기 정신, 나귀와 포도나무, 일터교회 세우기, Beyond Babel

+ C-LAMP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공적인 경영 성과를 일궈내는 실천 전략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가, 성경적 리더십, 하나님의 소유권, 성경적 관점의 전략/기획, 성경적 인사/노사, 성경적 조직관리, 성경적 관점의 마케팅, 성경적 재무관리, 창의적 문화와 혁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기업, 전략적 제휴와 자원 활용, 기독교경영사례

+ C-LAMP는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통찰하면서 개인, 가정, 일터, 국가, 세계의 올바른 회복과 균형적 발전을 제시하는 전문가, 석학 초청 특강을 제공합니다.
 한국 경제 특강, 통일 비전, 교육 경쟁력, 빈곤, 기아 대책, 인생의 하프타임, 대인 관계, 갈등 해소법, 가정의 신비, 건강법, 세상을 바꾸는 문화

세미나 Seminar

- +** 해외 세미나 - 하와이 열방대학
뜨거운 영성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C-LAMP의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미국 하와이 코나에 위치한 열방대학에서 1주일간 '크리스천 비즈니스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 +** 부부세미나
부부세미나의 특별 초청 명사 강연을 통해 바람직한 크리스천 가정상을 제시합니다. 기독교 경영인으로서의 보람과 기쁨, 갈등과 어려움을 함께 나눔으로 진정한 동역자를 알게되는 자리입니다.

과정안내

- * 학사 일정 : 2012년 3월 15일(목)~6월 28일(목) 16주 과정
- * 강의 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6:00~9:30
- * 강의 장소 : 서울 YWCA 본관 4층 대회의실(명동 소재)
- * 등록금 : 420만원(교육비 영수증 발급, 해외 세미나 비용 별도)

특전

- * 명지대학교 및 열방대학교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동문회 활동지원
- * C-LAMP 교수진의 자문과 지도/ 뉴스레터, 특강자료집 등 정기간행물 증정
- * 동문 추천시 10% 할인 특전 부여/ 부부등록의 경우 50% 할인 특전 부여

입학지원 관련 문의
www.ceedkorea.org

137-824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537-8
대진빌딩 301호 CEED KOREA
전화 : 070-8263-9118
010-3121-7568(조정민 간사)
E-mail : clamp@ceedkorea.org

“세계 어느 곳의 선교 현장에서
홈스쿨로 자녀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코너스톤 커리큘럼

커리큘럼은 세계관입니다. 세상을 어떤 가치와 기준으로 판단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선택입니다. 성경에 기초한 커리큘럼, 성경적 세계관을 선택한 여러분을 위한 커리큘럼을 소개합니다.

* 코너스톤 커리큘럼의 특징

코너스톤 커리큘럼은 성경(성품)에 기초하여 역사, 국어(한문), 영어 등 다른 교과목과 연계해 통합 교육적 공부법을 제시하여 기존의 교육으로는 채울 수 없는 새로운 교육 철학과 방법을 제시합니다. 모두 10단계로 구성되어 1~5단계에서는 언어의 기초 능력을 확실히 다지고 6~7단계에서는 기본적인 논리를 공부하며 8~10단계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에 대해 변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성경과 성품교육을 가장 중심에 두고 성경과 역사를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살랏 메이슨 교육 방법론과 고전교육 방법론에 따라 고전 문학 작품부터 현대의 작품까지 저자의 담이 서린 좋은 작품을 선정하여 서술하기, 소리내어 읽기, 랩북 만들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1단계
(만6-8세)
- 2단계
(만7-9세)
- 3단계
(만8-10세)
- 4단계
(만9-11세)
- 5단계
(만10-12세)
- 6단계
(만11-13세)
- 7~10단계
(준비중)

* 코너스톤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어린이는 하나님의 온전한 피조물로 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어린이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이므로 자신의 창의성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2. 코너스톤 커리큘럼은 10단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1~5단계에서는 언어의 기초 능력을 확실히 다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6~7단계에서는 기본적인 논리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8~10단계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에 대해 변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3. 성경과 성품교육을 가장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하나님에 보시기에 바른 사람으로 자라나기 위해 좋은 습관을 갖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성품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벧전1:15-16).
4. 성경과 역사를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기 때문에 역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5. 살랏 메이슨 교육 방법론에 따라 살아 있는 책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좋은 고전 문학 작품부터 현대의 작품까지 저자의 담이 서린 좋은 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문학작품들을 서술하기, 소리내어 읽기, 랩북 만들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코너스톤 커리큘럼은 고전교육 방법론의 중요성에 따라 고전 교육 방법론을 커리큘럼에 적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7. 역사, 국어, 영어를 성경에 기초하여 통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식에서 또 다른 지식으로 개념을 확장하면서도 깊이 있는 심화학습을 어린이들이 흥미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8.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법을 일깨워 공부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학습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9. 커리큘럼은 36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어린이들의 성취도에 따라 진도와 학습량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코너스톤 커리큘럼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전화/홈페이지/방문상담)
T. 02-529-7722 | www.dctybooks.co.kr/curriculum/course.asp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기독교 홈스쿨가정과 기독교 대안학교를 위한 교재 및 커리큘럼을 공급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여 학문과 성경을 통합한 도서 및 교재를 소개함으로써 통합적 사고를 가진 아이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3-11 | Tel. 02-529-7722 | Fax. 02-571-5353
www.dctybooks.co.kr

꿈을 이루는
사람들



CGNTV를 통해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Christian Global Network Television

복음의 순수성과 선교의 열정이 살아있는 방송
오늘도 CGNTV는 세상 가득 하나님의 꿈을 전송합니다.

www.cgntv.net | 시청문의 02)796-1118

<CGNTV 시청방법>

- IPTV. B tv(ch.604)/olleh tv(ch.556)/U+ tv(ch.183)
- 케이블. C&M(ch.703)/C&M 강남(ch.136)

춘계학술대회 개최 및 발표논문 모집

2012년 춘계학술대회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2012. 5. 18(금)–19(토)
장로회신학대학교

분과별 발표 논문 모집 요강

- 논문 발표 신청 접수 : 2012년 2월 29일까지
- 논문 완성본 제출 : 4월 30일까지(〈신앙과 학문〉 편집규정 참고, 일정준수필수)
- 전체일정 :
5월 18일(금) 국제학회 (중국 절강대학교 기독교와 타문화연구소 공동주최)
5월 19일(토) 기독교학문학회 (대학원생 세션, 주제강연 및 논평 분과별 발표)
- 신청 접수/논문 제출처 : gihakyun@daum.net
(학회_신효영 간사, 02-3272-4967)
- 신청 내용 : 발표자, 소속, 논문 제목, 연락처(휴대전화와 e메일)
- 발표논문은 〈신앙과 학문〉 학술지 투고시 우대합니다.

대학원생 발표 논문 모집 요강

- 논문 발표 신청 접수 : 3월 30일까지
- 논문 완성본 제출 : 4월 30일까지(〈신앙과 학문〉 편집규정 참고)
- 신청 접수/논문 제출처 : gihakyun@daum.net
(학회_신효영 간사, 02-3272-4967)
- 신청 내용 : 발표자, 소속, 논문 제목, 연락처(휴대전화와 e메일)
- 우수논문은 〈청년기독학술논문상〉 수여
- 문의 02-3272-4967(사무국), 010-4195-1769(신효영 간사)

연구재단 학술등재지 〈신앙과 학문〉 투고모집



〈신앙과 학문〉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학문의 각 영역에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연구한 내용들을 널리 소개하기 위하여 발행하고 있습니다.
투고 논문은 학회 사무국에서 상시접수하며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연 4회 발간되는 발행일에 맞춰 게재됩니다.
관심있는 학자들의 적극적인 투고 바랍니다.

17권 2호 투고접수 : 5월 4일 (6월 30일 발행)

17권 3호 투고접수 : 8월 3일 (9월 30일 발행)

17권 4호 투고접수 : 11월 2일 (12월 31일 발행)

문의 _ 기독교학문연구회(학회) 02-3272-4967 / gihakyun@daum.net